metro

메트로 2014년 3월 11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여 집단 휴진에 들어간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의 접수 창구가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 접수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손진영기자

의료계 집단휴진 예상보다 '미풍'

휴진율 29% 그쳐…혼란 없었지만 불편했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정대로 시작했지만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원격진료 및 의료 영리화 추진 등을 막고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10일 오전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전체 1만7000여 명의 전공의 중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을 제외한 63개 기관 7190명(42%)의 전공의가 휴진에 동참했으며 동네 의원도 자유롭게 파업을 시작했다.

빅 5 병원 중에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유일하게 파업에 들어갔으며 고려대 의료원, 경희대병원 등도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수가 올리기 위한 파업이란 의견도

하지만 파업 개시 첫날 우려됐던 의료 대란은 없었다. 대형병원 역시 휴진이 이날 하루만 진행된 후 24일부터 재개되고 참여 인원도 적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오전 9시에 진료를 시작한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에서는 휴진으로 인한 혼란 없이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한 병원 관계자는 "파업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큰 불편 없이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환자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및 의사 중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규모 휴진으로 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던 지역 보건소들도 별다른 변화가 없자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종로구 보건소의 경우 월요일에 찾는 환자 수는 보통 50~60명 수준이었는데 이날 오후 3시 현재 46명의 환자가 방문해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었다. 이 보건소 전문의는 "파업 참여 비율이 낮은 것은 파업에 참여해봤자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의사들 사이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며 "24일 다시 파업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땐 수술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파업 기간이라고 해도 보건소를 찾는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다만 동네 병·의원 중 휴진에 들어간 병·의원을 알지 못해 병원을 찾았다가 돌아가는 등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 서초구 한 정형외과를 찾은 최모(33)씨는 "아침 일찍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았는데 문을 닫아 다른 병원으로 가야 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딱 밥그릇 싸움 때문에 휴진하는 꼴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대문구의 한 내과 의원은 휴진을 안내하는 공고문을 입구에 부착하고 진료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 의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던 40대 주부 신모씨는 "주사를 맞으러 왔는데 휴진인지 몰랐다. 평소 예약 없이 바로 진료를 받았는데 난감하다"며 "파업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병원을 안내해주는 걸 보면 괜찮은 것 같다. 24일 총파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 전에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협의 정면 충돌에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정 양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협이 수가를 올리기 위해 의료제도를 명분으로 파업에 나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사들의 실력 행사 뒤에는 항상 수가가 오르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휴진에 들어갔지만 섭자 수가는 7.08% 올랐었다.

<3면에 계속>

여객기 사건 테러 가능성 시사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사건의 범행 주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에 따르면 '중국순교자여단'이라고 자칭한 단체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언론인 벡이맘이 이 단체의 지도자로부터 e메일을 받았다고 보쉰은 전했다. '말레이시아항공기 MH370 사건에 대한 성명과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진 메일에는 "이번 사건 희생자들이 모두 알라 앞에서 참회하고 있다"면서 사고 항공기 수색과 탑승객 구조 작업은 모두 헛수고에 그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메일에는 이번 사건은 우리를 잔혹하게 박해한 말레이시아 정부와 위구르족을 잔혹하게 박해한 중국 당국에 대한 보복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이 위구르인 1명을 살해하면 우리는 중국인 100명을 살해해 보복할 것"이라면서 "사고 여객기는 기술상의 고장이나 조종사의 실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러나 보쉰과 네티즌은 ▲문제의 인물이 전달용으로만 사용되는 허시 메일을 사용했고 ▲위구르 단체는 통상 '중국XXX'라는 명칭 대신 '동투르크스탄 XXX' 또는 '이슬람 XXX'라는 명칭을 썼으며 ▲범행 수단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단체의 존재 여부에 의혹을 표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당국은 도난당한 유럽 여권을 사용해 탑승한 승객이 유럽인이 아닌 아시아계라고 10일 밝혔다. /조선미기자

"우리도 사람답게"…그들의 절규

기자 수첩
조현정
(정치사회부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내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고려대·경희대에 이어 연세대·동덕여대·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오는 12일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9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따르면 연세대의 청소·경비·주차·자량운전 노동자 350여 명이 파업을 결의했고, 동덕여대와 덕성여대의 노동자 110여 명도 파업에 다서기로 했다.

앞서 고려대와 경희대 청소노동자들도 지난 3월과 5일 시급 인상과 학교 측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5700원이던 시급을 노동부 권고 사줍노임단가 7920원의 87.7%인 7000원으로 인상해달라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주요 사립대들은 총 2조8000억원이라는 적립금이 있지만 용역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아보자', '남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고 외치며 벌인 이번 파업은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나 다름없다.

하지만 용역업체 측은 원청인 학교 측의 허가 없이는 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다. 학교 측은 용역업체와 협상하라며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절대 약자인 이들이 마지막 결단으로 파업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용역업체 측은 이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여길 바란다.

정상수준 50배 넘는 벤젠 검출

유조선 충돌 여수 앞바다 조사 결과

지난 1월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 낙포동 지역에서 정상 수준의 50배에 달하는 벤젠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지난달 5일부터 방제 작업 중인 여수 현장에서 공기 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방제 작업에 투입된 35명의 지역 주민을 상대로 소변 표본을 채취해 유기화합물 노출 정도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사고 지역 대기 중 발암물질인 벤젠의 농도는 21.4~52.2ppb로 정상 대기 수준(1ppb)보다 최대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의 소변에서는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크실렌이 평균 56mg/g Cream 검출됐다.

이들은 "벤젠 등 유기화합물은 사고 초기 8시간 이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이라며 "사고 초기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학물질 관련 사고 시 유해물질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 행동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공개를 거부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다예기자 ydh@metroseoul.co.kr

한자리 모인 여야 거물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가운데부터) 등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100% 찬성 대의원에

동생 김여정도 공식 데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중앙선거위원회 보도를 인용해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외 전체 선거자가 전날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100% 찬성투표를 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되셨다"고 보도했다.

5년마다 시행되는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것으로, 이번에 처음 이름을 올리는 대의원들은 김정은 시대를 이끌 엘리트로 구성된다.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군 총정치국의 렴철성 선전부국장, 김수길 조직부국장, 황병서·홍영철 마원춘 당 부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의 친여동생인 김여정(27)이 급부상했다. 중앙통신은 9일 김여정이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이때 김여정은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당 조직지도부의 김경옥 제1부부장과 황병서 부부장 등 김정은의 최측근 세 사람과 동행하며 정치적 위상을 과시했다.

북한 언론이 김여정의 활동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 혈통'의 직계인 김여정이 앞으로 김경희의 빈자리를 메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여정은 사실 고영희의 세 자녀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영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마 남자였다면 그가 권력을 물려받았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 감각이나 모든 면에서 제일 낫다는 평가다"고 말했다.

/김근순기자 ksk.m@

새누리, 주택임대차 대책 비판

새누리당 지도부 일각에서 정부의 주택 임대차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10일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일주일 만에 보완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이번 파동은 지난해 8월 세제개편안 파동의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 과제 중 첫 번째가 이 모양인데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정부가 세수 확대에만 관심을 둘 뿐 시장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기껏 숨통이 트이고 호흡을 시작하면 주택 시장에 산소호흡기를 떼어낸 셈"이라며 "사실상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과세 정책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없이 진행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했다"며 "이는 심각한 정책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h@

신당추진단 인선 마무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0일 양측 통합 작업을 이끌 신당추진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각각 공동 신당추진단장을 맡기로 하고 민주당에서는 안병두 의원이 정무기획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최원식 의원과 박용진 홍보위원장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정강정책분과위원회는 위원장에 변재일 의원, 위원으로 홍종학 의원, 홍익표 의원이 선임됐다. 당헌당규분과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상민 의원, 위원으로 민홍철 의원, 송기복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맡는다.

새정치연합 측 정무기획분과 위원장은 송호창 소통위원장, 정강정책분과는 윤영관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 당헌당규분과는 이계안 공동위원장, 총무조직분과는 표철수 공보단장이 선임됐다. 공동신당추진단 공동대변인은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과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이 맡았다.

/조현정기자

프란치스코 교황 8월14일 방한

프란치스코(사진) 교황이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천주교 초청으로 오는 8월 14일 방한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14일부터 18일까지 방한해 박 대통령 면담 및 대전교구에서 주최하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는 13~17일까지 대전·충남지역에서 개최된다.

민 대변인은 "교황의 이번 방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훈

'프랑켄슈타인' 탄생

1818년 3월 11일 대단히 자극적인 괴물이 탄생했다. 영국의 여류작가 M. W. 셸리가 괴기소설 「프랑켄슈타인」을 내놓은 것이다. 제네바의 물리학자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죽은 사람의 뼈로 2.44m의 인조인간을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괴물은 초인적인 힘을 갖춰 추악한 자신을 만든 창조주에 대한 증오심으로 박사의 동생과 신부를 살해하고 자신과 함께 살 여자를 만들라고 요구하는데... 현대과학에 대한 파괴의식과 미래에 대한 공포감을 그린 이 소설은 1931년 유니버설영화사에서 영화화해 이 크게 히트한 이래 연작물로 제작되었고 괴물 역의 배우 보리스 카를로프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의협 준법근무, 24일부터 또 전면 휴진

<1면에서 계속>

◆복지부 경찰 공정위 등 적극 대응

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 경고한 대로 강경한 대응에 나서 의협과의 대화 재개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10일 정오를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91곳 가운데 8339곳이 휴진에 참여해 전체 휴진율이 29.1%라고 밝혔다. 휴진율 파악 후 복지부는 휴진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휴진한 의료기관 문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붙이는 작업을 벌였으며 현장에서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휴진 참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힘을 보였다.

또 의료기관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파업을 지속할 경우 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이들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는 11일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을 보내고 1주일간 소명 기회를 줄 계획이다. 또 대응 방안 등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침으로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의료계 휴진 사태에 대해 행정기관 등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갈 방침을 세웠으며 휴진에 참여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키로 했다. 게다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정례 간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더욱이 시민단체도 집단 휴진을 반대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지 말고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소비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의사 본연이 우선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11일부터 23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 의 준법 근무를 실시하고 24일부터 6일간 전면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재용·김학철 정혜인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종편 재승인 반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언론노조와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종편국민감시단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동아일보사 앞에서 '조중동 종편 벽주기 심사 규탄, 재승인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창의행정으로 지역발전 이끈다

서구, 정책연구단 구성 …주민 편의 시책 등 개발

부산의 한 지자체가 지역 발전 및 주민을 위한 '창의행정' 실천에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부산 서구(구청장 박극제)는 6급 이하 직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희망자 30여 명을 선발하고 '서구정책연구단'을 구성해 오는 3월 말 발대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 정책연구단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부산 지역 지자체 가운데는 서구가 처음이다.

서구정책연구단은 일반 행정, 보건 복지, 문화 관광 교육, 도시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주민 편의과 복지 방안 연구, 예산 절감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그 밖의 정부 주요 시책 추진 및 구정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아울러 연구단원들끼리의 연구와 토론은 물론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지조사와 전문가 면담, 강연회 세미나·워크숍 포럼 등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 연간 1차례의 연구과제 보고회도 개최해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각 분야별로 관내 대학과 부산발전연구원, 각종 위원회 등 외부의 전문가를 정책자문 교수로 영입하는 한편 구정 업무에 오랜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각 부서장을 정책 카운슬러로 활용키로 했다.

특히 정책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구활동비는 물론 국내외 우수 사례 견학을 위한 연수경비 지원과 우수 정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전폭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직 문화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며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장려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email]@metroseoul.co.kr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에 사는 암컷 큰돌고래가 7일 새끼를 순산했다. 새끼를 낳은 직후 어미와 새끼의 모습.

/울산 남구 제공

울산 수족관 새끼 돌고래 태어난 지 사흘만에 폐사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사흘 만에 폐사했다.

울산시 남구는 지난 7일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10일 오전 3시께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오전 4시50분께 결국 폐사했다고 밝혔다. 이 돌고래는 7일 오전 11시 40분께 몸 길이 1.1m, 무게 약 25㎏ 크기로 태어났다.

어미를 따라다니며 자맥질하거나 젖을 먹는 등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남구는 새끼 돌고래의 사체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

/연합뉴스

LH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본부는 고촌과 안락4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부산권 2개 단지에 예비 입주자 29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지는 2010년부터 2011년 입주한 주택으로 예비 입주자에 당첨되면 2014년 6월 이후 예비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임대보증금은 1482만7000원에서 2306만6000원이며 월 임대료는 10만2000원에서 16만8000원 수준이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로 월평균 소득 322만4350원(3인 이하 가구) 이하, 부동산 가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4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13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5월 15일 예정이다. 문의 1600-1004

온 종합병원 심혈관질환 강좌

부산 온 종합병원(병원장 정근)은 오는 13일 오후 3시30분부터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갑작스러운 죽음, 급사! 당신의 심장이 생명을 노린다'라는 주제로 무료 건강교실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심혈관센터 경상렬 과장의 특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대표되는 심혈관 질환의 원인과 증상, 올바른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강연한다.

또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과 추첨을 통해 경품을 나눠주는 행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051)607-0158

비닐하우스에 떨어진 운석 추정 암석 10일 오전 경남 진주시 대곡면 강윤기(57)씨의 파프리카 재배 비닐하우스에 떨어진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오른쪽 아래)을 강씨가 가리키고 있다. 작은 사진은 운석이 뚫고 들어온 흔적. 암석이 떨어지면서 비닐하우스 천장(왼쪽 상단)을 뚫고 농작물을 지지하는 파이프가 크게 휘어진 흔적이 남아있다.

/연합뉴스

방문간호사 등 12명 무기계약직 전환

부산 연제구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지역 기초단체 중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 것은 연제구가 처음이다. 방문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 건강증진사업 근로자들은 저소득층 가정에 방문해 건강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들은 노인들에게 운동을 가르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공급 상황 점검과 함께 교육하는 일을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라는 신분 탓에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국비무료 직업훈련 유망직종 설명회 21일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사상구청 신바람홀에서 '2014년 국비무료 직업훈련 유망직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 내용은 ▲2014년 국비무료 직업훈련 소개 및 취업정보 제공▲구직 상담 실버건강지도사 천연라이스클레이지도사▲숍마스터 신발산업 취업 연계 기업맞춤▲체험학습지도사 급식조리사 천연염색전문지도사 경리사무원 등이다.

문의 051)326-7400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모집

부산동부고용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남부지사는 의무 교육을 수료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모집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은 체계적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500만원, 교재개발비 300만원, 체험교수수당 800만원 및 현장 담당자 수당 300만원, 직무연수비 100만원을 매년 지원받는다.

실비 수준의 현장 훈련 및 이론교육 소요 비용(매월 80만원)과 학습 근로자당 인건비 보조금(매월 4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 기준에 의한 문화콘텐츠, 건설, 기계(금형), 재료, 화학, 전기·전자(반도체), 정보통신(SW)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최고경영자(CEO)의 자체 인력 양성 의지가 높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인적자원개발(HRD)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50인 미만 사업체도 참여 가능하다. 문의 051)620-1931

/정하균기자

'안용복 기념 부산포 개항문화관' 개소

부산 동구(구청장 정영석)는 이날 11일 오후 2시30분 '안용복 기념 부산포 개항문화관'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개항의 역사와 부산 중가 동구의 위상을 담은 이 문화관은 동구 좌천동 부산진교회 뒤편 757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부산진 개항가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주차장복합시설 부산포 개항문화관은 잊혀진 역사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으로 공영주차장 5층에 자리 잡았다.

문화관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독도 수호신 안용복 장군 1, 2차 도일 자료를 비롯해 부산포 개항, 이종무 장군의 대마도 정벌 출정식(두모포), 부산과 일본의 교류의 중심지였던 왜관(부산포 두모포), 영가대, 부산진성, 정공단 자료 등이 전시된다.

/정하균기자

조재현 영화과 교수 '콤플렉스는 에너지다' 특강 경성대학교(총장 송수건)는 지난 7일 오후 3시 27호관 프레지던트홀에서 영화학과 조재현 교수의 '콤플렉스는 에너지다' 특강을 개최했다.

현금수송차량 '2억원 도난 미스터리'

통행료 수거 중 차 사라져 11분만에 발견 금고 '텅텅'

고속도로 통행료를 수거하던 현금 수송차량이 눈 깜짝할 새 사라졌다. 이 차량은 2㎞ 떨어진 곳에서 11분 만에 발견됐지만 금고는 비어 있었다.

차량이 없어진 것은 10일 오전 3시28분께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요금소(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소재) 앞에 세워둔 현금 수송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괴한이 몰고 달아났다.

차량 안에는 경북 경산요금소와 영천, 경주, 서울산, 통도요금소 등 요금소 8곳에서 거둬들인 통행료 2억1900만원이 실려있었다.

현금 수송 대행업체 직원 2명이 부산요금소 사무실로 통행료를 수거하러 들어가고 차량을 지키던 직원 1명이 열쇠를 꽂아둔 채 외부에서 리모컨으로 문을 잠그고 화장실로 간 사이 비상벨이 울렸다.

직원들이 다급하게 사무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차량이 피자로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10일 오전 3시28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톨게이트에서 현금 2억여 원이 있던 현금 수송차량이 괴한에 의해 털린 뒤 인근의 보호관찰소 건물에서 발견됐다. 사진은 발견된 현금 수송차량을 경찰이 감식하는 모습. /연합뉴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차량 안에 있던 위치추적장치(GPS)를 확인한 결과 차량은 부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11분 뒤에 2㎞가량 떨어진 부산 금정구 청룡동 보호관찰소 앞에서 발견됐다.

돈은 포대 8곳에 나눠 담아 금고에 보관돼 있었는데 운전석 쪽에서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쉽게 훔쳐갈 수 있었다.

경찰은 현금 수송 대행업체 직원들이 열쇠를 꽂아 두고 차량을 비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여러 요금소를 거치면서 통행료를 많이 싣고 있던 시간대에 도주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부산요금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역치매센터 14일 문연다

동아대병원에… 치매 극복 디딤돌 역할 수행

부산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동아대학교병원 본관 1층 아뜨리움에서 치매 극복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광역치매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권오창 동아대 총장, 김상범 동아대 병원장, 송근일 부산시 복지건강국장 및 시·구·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및 커팅식, 센터 사무실 및 교육실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역치매센터는 동아대학교병원 센터동 내 10층에 위치해 있다.

이 센터는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 급증이 전망되는 지역 내 치매 치료 등을 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술 지원 및 종사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 치료 및 뇌기능 증진을 포함하는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다.

동아대학교병원은 치매관리 기획사업, 교육사업, 진단 및 조호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 연구사업,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등으로 노인 의료비 절감과 가족 부양 부담 경감을 통해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의 치료 관리를 지원할 이번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학균기자 hk@metroseoul.co.kr

동의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 선정

동의대가 여대생 취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의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강미광 교수)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2014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대학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 발표에서 '센터 지원사업 부문'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센터는 진로 탐색과 진로 준비를 하는 여대생과 더불어 지역사회 여고생, 고학력 여성을 위한 폭넓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잘 다뤄지지 않던 아름계 여대생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금융기관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무행정전문가과정 등의 실무 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정학균기자

200가구에 '그린홈 보조금' 최대 330만원 지원

부산시가 2020년까지 5000가구에 그린홈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2014 신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과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주택지원사업이란 정부에서 2020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주택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 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한 건물주에 대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200여 가구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 소재 신 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한 일반 공동주택의 건물주로, 에너지원 및 설치 규모에 따라 7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태양광 3kW의 경우 가구당 9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은 ▲신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선정·계약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적정 여부 확인 ▲시비 보조금 지원 신청 ▲수택별 설비 설치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 확인 후 보조금 지원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부산시청 신성장산업담당관실(16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선착순) /정학균기자

좋은문화병원 체험투어 강좌

좋은문화병원 원영원장 문화숙은 지난 9일 본관 11층 강당에서 조록빛나무리기반 구들 40명을 대상으로 체험투어 강좌를 실시했다.

market index <10일>

코스피	1954.42 (-20.26)	코스닥	542.19 (-1.57)
금리	2.88 (-0.02)	환율	1068.20 (+5.00)

직장인 점심값 6488원 '역대 최고'

직장인 점심값 부담이 5년 만에 25%나 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962명을 대상으로 점심 문화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점심값으로 쓰는 돈은 역대 최고치인 평균 648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조사(5193원)보다 24.9%나 증가한 수치다.

이 때문에 점심값 상승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직장인이 많았다.

직장인 63.9%는 '점심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답한 반면 '조금 올랐다'는 대답은 30.9%에 불과했다. 특히 가격은 올랐지만 음식량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었다는 답변이 98.5%나 됐다.

직장인이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가격(84.4%)과 맛(79.1%)이 압도적이었다. 이 밖에도 거리(36.9%), 음식 나오는 속도(36.0%), 양(15.5%), 전날 먹은 메뉴(8.9%), 서비스(8.7%) 등을 고려했다. 가장 자주 먹는 점심 메뉴는 김치찌개(35.9%)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국현기자 knlee@

뉴스&뉴스

성주 월항 참외 50% 할인

10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성주 월항 참외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성주 월항 참외(5~9개/2kg)를 12일까지 시중 판매가 대비 50% 저렴한 59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신응환 농협 카드총괄 사장

농협은행이 카드 사업 총괄 사장으로 신응환(57) 전 삼성카드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전 사장은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삼성카드에서 상무, 전무, 부사장을 역임한 카드 사업 전문경영인으로 알려져 있다. /백아란기자

개인정보 5년 이상 보관 금지

금융분야 고객 신상유출 방지 종합대책
주민번호 노출 예방위해 의무적 암호화

앞으로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보관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 시에만 수집하되 번호 노출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꼭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 유출과 과거 해킹 사고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종합적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얻기한 사항 의 정보 제공 등의 동의서 양식은 중요 사항은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하고 필수 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전면 개편된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현황을 조회하고 영업 목적 전화에 대한 수신 거부(Do-not-Call) 등록 등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임원 등의 정보보호·보안 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정보 활용, 유출과 관련한 금전적·물리적 제재를 대폭 강화해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해 불법 정보 유통을 근절할 예정이다.

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보안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카드 결제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단말기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킹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고 카드 결제 과정에서의 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금융회사가 보유 또는 제공한 정보도 불필요한 것은 즉시 삭제하고 정보 유출 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마련 및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해 기존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신속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및 확산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과거처럼 일회성 사고로 흘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에서도 보듯이 금융 분야 이외의 통신, 의료, 공공 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병기자 ...@metroseoul.co.kr

1,954.42
▼20.26 (-1.03%)

외국인·기관 동반 매도 코스피 1950선 '위태' 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1950선 위탄까지 후퇴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0.26포인트(1.03%) 내린 1954.42로 마쳤다. /연합뉴스

모바일 주식 거래 4년새 8배 늘었다

모바일 주식 거래가 4년 새 8배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이뤄진 온라인 매수·매도 중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무선단말기를 통해 주문된 거래대금의 비중은 매수와 매도가 각각 25.1%와 25.2%를 기록했다.

모바일 비중은 지난 2010년만 해도 3% 남짓이었으나 4년 사이에 이처럼 불어났다. 금액으로는 전체 온라인 매수·매도액이 각각 27조8455억원, 27조72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무선단말은 6조9974억원, 6조9898억원이었다.

주문 매체별로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전체 온라인 매수·매도의 각각 74.1%, 74.0%를 차지했고 유선단말은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무선단말을 이용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비중이 매수액 기준으로 2010년 10월 3%, 2011년 6월 10%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20% 선을 넘어섰다. /김현정기자

중장년 채용기업 70% "만족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 회원 307개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채용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중장년을 채용한 적 있는 266개사의 70.3%가 "중장년의 업무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기업은 6.4%에 불과했다.

전경련 중기협력센터는 "대기업에서 역량과 경험을 쌓은 중장년층이 재취업한 중소·중견기업에서 경영 혁신과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태림기자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911

발행·편집인	남균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관훈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3-2100
독자센터	02)721-9855

어느
부드러운 봄날
처음처럼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아이스 브레이커스 로 로맨틱 화이트데이 10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모델들이 허쉬코리아의 아이스 브레이커스 화이트데이 스페셜 패키지 증정 이벤트를 홍보하고 있다. 이 패키지 증정 이벤트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흔들림 없을 김중수 총재

13일 마지막 금통위서도 기준금리 '동결' 전망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김 총재의 임기 마지막 달인 만큼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특별한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2.50%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한 차례 인하한 이후 9개월째 동결을 고수해왔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강도가 세지는 않았다"면서 "경기 개선 추세에 대한 이견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주장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가 좋아지고 지난해보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맞는데 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금리를 서둘러 인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총재의 임기가 이달 끝나기 때문에 후임 총재에게 부담은 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이성태 전 총재, 박승 전 총재도 임기 마지막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었다.

시장에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이주열 신임 총재 후보자의 청문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립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오히려 통화정책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별보다 '15억짜리 티아라'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세계에서 하나뿐인 15억원짜리 다이아나를 관예객 눈길을 끌고 있다. 프랑스 주얼리 브랜드 쇼메의 하이주얼리 로즈라이트 가넷 티아라는 총 432개의 다이아몬드와 24.4캐럿의 가넷 등으로 장식돼 있다. /연합뉴스

이달말까지 '상장폐지 주의보'

작년 실적감사보고 기한 거래소 '투자 유의' 발동

이달 말 돌아오는 상장사들의 시난해 실적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주식시장에 '상장폐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12월 결산법인 중 관리 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했다.

거래소는 한계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윤생 시감위 기획감시팀장은 "주요 주주와 임직원 등이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이용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감위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요 특징을 세 가지 제시했다.

먼저 직전 분기까지 영업 실적 및 재무구조가 취약했던 기업이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에 임박해 주가가 요동치거나 거래량이 급증할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영·시장 환경의 개선 없이 재무 실적이 급격히 좋아진 기업도 주의 대상이다.

단기간에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었거나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기업, 사업 목적 변경으로 고유의 수익 모델이 취약해진 기업도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김현정기자 hjkim@

결국 보조금 전쟁 승자는 SKT·KT·LGU+

Issue&View
이통3사 영업정지 의 모순

/장윤희 기자 unique@metroseoul.co.kr

출혈경쟁 45일 중단돼 2분기 실적 개선 '수혜'
단말기 제조사·대리점 엉뚱하게 피해자 신세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를 앞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3일부터 이통 3사의 영업정지가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통신사의 피해는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극심한 보조금 경쟁이 멈추는 만큼 이통 3사의 2분기 실적이 10% 이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전년 대비 예상되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SK텔레콤 6433억원(+18%), KT 3375억원(-3.1%), LG유플러스 1909억원(+31.8%)이다.

성 연구원은 "특별 주자로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사용한 LG U+의 이익 개선폭이 3사 중에서 가장 클 것"이라면서 "삼성전자 갤럭시S5의 예상 출시일인 4월 11일에 LG U+ 혼자 영업을 하는 만큼 수혜를 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 영업정지로 단기적 이익이 큰 곳은 LG U+이지만 중장적으로 가장 크게 웃는 쪽은 SKT란 의견이 우세하다. 업계 1위로서 충성 고객을 많이 보유한 점, 경쟁사에는 없는 신규 통화 서비스 'T전화'와 갤럭시S5 탑재 소식이 이유다. 이 밖에 KT는 3사 중에서 LTE 요금 가입자 비중이 제일 낮아 영업정지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가입자 50% 이상을 보유하는 SK텔레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라면서 "다만 지난해에도 영업정지 제재가 있었지만 시장이 안정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안한 요소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마트폰 제조업계와 대리점이 제일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국내 의존도가 높은 팬택은 워크아웃 상태에서 영업정지까지 맞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새 전략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씁쓸하긴 마찬가지다.

통신사 한 곳만 맡는 휴대전화 대리점 관계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개점 휴업하게 생겼다"고 울분을 토하는 상태다.

최근 열린 대정부 성명 발표회에서 안명학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영업정지 기간 피해를 받는 쪽은 통신사가 아닌 휴대전화 대리점 종사자"라며 "정부의 영업정지 명령은 엉뚱한 피해자만 양산하는 만큼 과열된 이통 시장을 본질적으로 가라앉히는 요금제 인하 등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OK캐쉬백 앱 내려받으면 포인트 제공 모델들이 SK플래닛의 봄맞이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SK플래닛은 OK캐쉬백 앱을 내려받고 모바일 신규 회원 권유를 하면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SK플래닛 제공

"KT의 수치… 혁신하자"

고객정보 유출 사건 관련 황 회장, 전 직원에 e메일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전 임직원에게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비통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10일 오전 전 임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지난 2012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 기업이자 IT 전문기업으로서 더없이 수치스러운 일로 고객에게 약속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놓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최단시간 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실행할 예정이라며 문제를 알면서도 내버려두는 관행적 태도, 보여주기식 업무 추진, 임시방편 및 부서 이기주의로 인한 고객 중심 사고 부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황 회장은 특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하나만 더 잘못돼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기에 비장한 각오와 혁신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거나 기획만 하고 실행은 나 몰라라 하거나 관행이므로 어영부영 넘어가는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KT는 오랜 시간 1등을 해왔던 국민 기업으로 KT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하자"며 "모두의 열정을 모아 1등 KT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황 회장은 지난 7일 KT 홈페이지 해킹 사고 관련 간담회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과거의 잘못은 철저하게 매듭지어 회사가 '1등 KT'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쌍용차 '뉴 액티언' 중국 출시 쌍용자동차가 10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인 뉴 액티언을 중국에서 출시하고 베이징의 한 예술센터에서 발표회를 열고 있다. /쌍용차 제공

10대그룹 SK·LG 빼고 작년 수익성 악화

지난해 삼성과 현대차 등 10대 그룹 가운데 8곳의 수익성이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벌닷컴이 자산 규모 상위 10대 그룹 소속 84개 상장사(금융·보험사 제외)의 지난해 개별 기준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은 69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 영업이익은 4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했다.

반면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SK와 LG를 제외하고 삼성·현대차·롯데·포스코·현대중공업·GS·한진·한화 등 8곳이 하락했다.

삼성(13개사)은 지난해 매출액 223조1000억원, 영업이익 23조40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0.48%에 그쳐 전년보다 0.2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삼성 소속 13개 상장사 중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상승했을 뿐 나머지 12개 계열사 모두 하락했다.

현대차그룹(10개사)의 경우 '엔저' 영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하며 수익성도 악화됐다.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0.9% 감소한 132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8.3% 급감한 9조7000억원에 머물렀다.

포스코그룹(7개사)과 현대중공업그룹(3개사)도 철강·조선 경기 침체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락하며 수익성도 떨어졌다.

포스코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각각 8.8%, 20.6% 감소한 52조원과 2조4000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률도 5.38%에서 4.69%로 0.7%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률이 2012년 4.34%에서 지난해 1.73%로 2.61%포인트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매출액은 3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영업이익은 6000억원으로 62.1%나 급감했다. /유대균기자

윈도XP 다음달 8일 기술지원 종료 '보안 공백'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XP 지원 종료가 한 달여 남았다.

MS는 4월 8일 이후 윈도XP 사용자 대상의 모든 기술 지원이 중단된다고 10일 재차 강조했다. 윈도XP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각종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 악성코드, 해킹 등의 보안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윈도 7·8으로의 전환을 권장했다.

기술 지원 종료는 윈도XP와 오피스 2003에 대한 보안 공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도난 등 개인의 피해 위험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하드웨어의 문제로 인한 시스템 오류 및 비즈니스 중단에 대한 피해의 위험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지원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국내 윈도XP 사용률은 지난해 2월 기준 33.52%에서 1년 만에 18.06% 감소해 올 2월 15.46%까지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하락세에도 국내 중소기업의 윈도XP 사용률은 여전히 높아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준기자

대세 TV '50인치'

최근 2년 판매량 70% 늘어

울트라HD(UHD·초고해상도) TV 보급 확대로 50인치대 TV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는 지난해 판매된 전 세계 평판 TV의 평균 크기가 37.1인치로 전년보다 1.6인치(4.5%) 커졌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2~3년 전까지만 해도 초대형 프리미엄으로 여겨지던 50인치대(50~59인치) 제품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대형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0인치대 TV 판매량은 2299만9000대로 29.4%나 늘어났다. 최근 2년 새 판매가 70%나 증가한 셈이다. 이에 반해 대형 TV의 주력이던 40인치대(40~49인치) 제품 판매는 지난해 6465만8000대로 7.8% 감소했다.

이 같은 TV 대형화는 국내에서 55인치가 100만 원대 후반으로 떨어질 정도로 가격이 하락한 데다 UHD TV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국명기자

KT스카이라이프 새대표 이남기 전 청와대 수석

KT스카이라이프는 신임 대표이사 후보에 이남기(사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후보자는 SBS 편성국장, 예능국장, 기획본부장, 제작본부장을 거쳐 SBSi 대표이사, SBS 콘텐츠허브 사장, SBS 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사장까지 역임한 후 지난해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을 맡기도 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카이라이프는 복수의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서류심사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5명의 면접위원 면접 심사를 거쳐 대표이사 후보를 최종 결정했다.

이 후보는 40여 년의 방송 경력을 지닌 최고의 전문가로서 미디어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스카이라이프의 미래 비전을 위한 전략 제시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인물로 평가됐다.

한편 이 후보는 28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사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이재영기자 ljy@

대학 졸업장=백수 진입증?

탈스펙 채용 확산에 실업자수 대졸>고졸 취업 시장 '고학력' 자랑 아닌 걸림돌 전락

서울 시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박상민(29·가명)씨는 이른바 '취업재수생'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여간 100여 군데 회사에 지원했지만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고졸 채용 바람에 힘입어 대기업에 다니는 고등학교 동창생 소식을 들을 때면 대학을 괜히 갔다"는 생각마저 든다.

탈스펙 채용 확산과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대졸 학력자의 실업률 고공 행진 현상이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졸 이상 실업률이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보다도 높을 정도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통계청이 발표한 '교육 정도별 경제활동인구'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대졸 이상 실업률은 3.3%로 5년 전(3.0%)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실업률은 3.1%로 0.1%포인트 떨어졌고 고졸 실업률도 3.8%에서 3.4%로 하락했다. 고학력자일수록 실업난이 극심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대졸 이상 연간 실업자 수도 고졸 실업자 수를 추월했다.

지난 5년 사이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26만8000명에서 35만5000명으로 32.5%(8만7000명) 증가한 반면 고졸 실업자 수는 38만4000명에서 34만7000명으로 9.6%(3만7000명) 줄었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높은 대학 진학률에서 비롯된 학력 인플레이션, 구직자의 눈높이 상승, 학력 제한을 없애는 기업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학력자 취업난이 벌어지고 있다"며 "취업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실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조정하고 기업의 채용 기준에 맞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지난 10일 실시된 삼성그룹 직무적성검사(SSAT) 시험을 마친 취업 준비생들이 고사장을 나서는 모습. /뉴시스

Btv 류현진·추신수 시범경기 생중계 SK브로드밴드는 자사 모바일IPTV인 B tv 모바일에서 류현진, 추신수 선수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를 실시간 중계한다고 10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제공

'P.R.I.D.E' 갖고 엔저 대응하라

상의, 수출기업에 5가지 경쟁력 조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0일 '한·일 수출 경쟁력 추이와 최근 엔저 이후 수출 동향'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엔저(円安)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으로 'P.R.I.D.E'를 갖춰야 한다고 소개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엔저로 일본의 수출 물량이 회복되고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도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P.R.I.D.E란 '효율성 제고(Promoting Efficiency)',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제품 고부가가치화(Delving up added value of product)', 'FTA활용률 제고(Enhancing Utilization of FTA)'를 말한다.

대한상의는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의 수출 물량이 지난해 엔저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5.3%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엔저 속에서도 일본 주요 기업들의 기술 개발, 사업 구조조정 등 경쟁력 강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엔저 시기에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전기·전자, 조선, 섬유 등은 달러 기준으로 우리의 수출 증가율이 일본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한 반면, 일본에 경쟁력이 뒤지는 일반기계,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증가율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엔저 시기에 우리의 수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전기·전자, 조선, 섬유 업종의 경쟁력은 유지·강화하고, 경쟁력이 뒤처지는 일반기계, 자동차 업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준기자 iume@

중기 SW종사자 위한 재교육 바우처 제도 이달부터 수강 가능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소기업 소프트웨어(SW) 종사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미래부는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관련 재직자의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SW교육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술 변화가 빠른 SW 산업은 재직자의 직무 역량 제고를 위한 재교육이 필수적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비 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SW전문인력양성기관(SWETI)을 통해 다양한 SW교육 바우처과정을 개설하고, 고용보험기금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통해 교육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SW교육 바우처는 중소기업 SW 관련 재직자를 대상으로 SW전문인력양성기관이 개설한 SW교육 바우처 과정을 제공하고 재직자가 듣고 싶은 과정을 자비로 수강한 후 실교육비의 80~100%를 지원(환급)받게 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자영업자, 180일 이내 이직 예정자, 90일 이상 무급휴직자,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50세 이상인 근로자 등이다.

SW교육 바우처 과정은 이번달부터 수강 가능하다. 수강 희망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자비로 수강 신청 후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이 지원금(교육비용)을 신청하거나 교육기관에서의 대리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정윤희기자 unique@

미분양 아파트 지속 감소… '삼송2차 아이파크' 분양완료 임박

치솟는 전셋값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도 잇따라 해소되고 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양·용인 등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 삼송지구 대표 단지로 꼽히는 A 20블록 '삼송2차 아이파크'의 계약률이 상승 중이다. 신분당선 연장계획 발표,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개발(2017년 준공 예정), 인근 은평뉴타운 전세가 상승 등에 힘입어 완판을 앞두고 있는 것.

A 8블록 '삼송1차 아이파크' 역시 3.3㎡당 980만원부터 1050만원 선의 파격적인 분양가로 마감을 앞둔 상태다.

삼송2차 아이파크는 지하 1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체 1066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74·84㎡로 구성됐다. 현재 삼송지구 분양아파트 가운데 중소형을 공급하는 유일한 단지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도보 거리에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 구간 삼송역 개발도 계획돼 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통일로, 원흥~강매 간 도로(8월 개통 예정) 등을 이용해 서울 도심 및 여의도 등지로의 이동에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산 조망권을 확보했고, 단지 앞으로 창릉천과 솔개천이 위치한다. 단지 내 지역와 산책할 수 있는 600m 규모의 산책로를 비롯해 단지 외곽에도 750m의 산책로를 조성한다. 단지 곳곳에 마련된 녹지 공간으로 마치 공원 같은 아파트를 선보일 전망이다.

[illegible]	삼송1차 아이파크	삼송2차 아이파크
세대수	618가구	1066가구
주택형	전용 101㎡·118㎡	전용 74㎡·84㎡
입주시기	즉시 입주가능	2015년 9월예정
특징	초등학교, 도서관 등 일로3C 입지	삼송역 역세권 대단지
분양문의	1577-1551	1566-1022

삼송2차 아이파크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의 약 3배 규모에 달하는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한다. 오픈스페이스는 건물 없이 녹지·조경 공간과 미이파크 플라자 같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뤄진다.

온 가족이 단지 내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가족캠핑장 역시 선보일 계획이다. 건물 옥상에는 정원과 더불어 삼송지구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선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28-15번지(삼송2차 아이파크 현장)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5년 9월 예정이다.

/이선욱기자

부동산대책 되레 강남 3구 수혜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액 28조 중 8조9000억 차지 '3분의 1'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4.1대책과 8.28대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및 거래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주거 안정이라는 대책의 목표와는 달리 고소득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 3구에 수혜가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개별단지 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만3843건, 총 거래액은 약 28조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비교해 거래량은 2만3110건(56.8%), 거래액은 약 10조원(55.1%) 증가했다.

◆거래량 10위권 내 6개 송파·강남

거래 건수는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에서 6830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송파구(4699건)와 강남구(4391가구)가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다.

다만 개별 단지별 거래량은 송파구와 강남구에서 두드러졌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가 작년 한 해 341건 거래되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잠실동 엘스(284건), 리센츠(273건) 순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가락동 시영1차(272건), 대치동 은마(226건), 개포동 주공1단지(197건) 등도 10위권 내 이름을 올렸다.

장용훈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이들 단지 대부분 규모가 커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래 회전율(재고량 대비 거래 건수) 자체도 서울 평균 4.3%보다 높다는 점은 감안할 때 실제로도 거래가 많았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작년 기준 이들 아파트의 회전율은 ▲파크리오 5.0% ▲엘스 5.0% ▲리센츠 4.9% ▲가락시영1차 7.6% ▲대치은마 5.1%에 이른다. 개포주공1단지만 3.9%로 평균을 밑돈다.

◆강남 3구 거래액 32%

작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총 거래액 약 28조원 중 8조9854억원이 강남 3구에서 소화됐다. 모두 25개 구로 이뤄진 서울에서 불과 3개 구가 전체 거래액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가 3조6633억원으로 거래액이 가장 컸고 그 뒤를 송파구(2조9968억원), 서초구(2조3243억원)가 이었다.

평균 거래가격이 가장 높은 곳도 강남구로 8억3428만원을 기록했다. 서초구(8억1527만원)가 2012년보다 한 계단 내려와 2위에 랭크됐고, 용산구(6억6942만원)와 송파구(6억321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비강남지역을 구분해 가격을 살펴보면, 강남 3구는 평균 거래가격이 7억5257만원, 중위 거래가격이 6억8250만원으로 7007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강남 3구 내 고가 아파트 거래가 다수 이뤄지며 평균 거래가격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이에 반해 비강남지역의 평균 거래가격은 3억6817만원, 중위 거래가격은 3억3200만원으로 3617만원 차이에 그쳤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지난해 양도세 5년간 한시적 감면에 매매가 6억원 이하뿐 아니라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포함되면서 강남 3구에서 고가의 중소형 주택 거래가 많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소형의 저가 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욱기자 ssook320@metroseoul.co.kr

"2000만원↓ 임대소득자 건보료 추가 부담 없어"

기획재정부는 2주택을 보유한 월세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은 없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가 2주택 보유 월세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만큼 분리과세 대상인 2주택 보유 월세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도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어서 추가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있다.

다만 과세 당국의 임대소득 파악으로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3주택자 등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또 시뮬레이션 결과 2주택 보유자의 연간 임대소득이 500만원일 때 가장 소득세 기준을 적용해도 세 부담은 0원이며 1000만원인 경우 종전 과세액이 3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가 1주택, 3주택 이상 사업자에게도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주장에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선욱기자

단지설계·특화 아파트 늘고 있다

최근 주변 자연환경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단지 설계 및 특화 아파트가 늘고 있다.

강·공원 등이 인접한 단지들은 주거 쾌적성이 뛰어난 데다 조망권 프리미엄까지 갖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단순히 이들 시설과 가까운 위치를 확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단지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화성 동탄2신도시 A 101블록에 분양할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에 단지 앞 저동천과 바로 연결되는 개방형 진출·입구를 만들 계획이다.

이 회사 설계 담당자는 "저동천 쪽 진출·입구에 주민공용시설을 배치해 주변 자연환경과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특히 저동천은 수변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라 입주민들이 산책·운동 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이 상반기 중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공급하는 '트리마제'는 한강시민공원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했다. 단지 앞 강변북로 하부 공간에 조성된 성덕정 나들목과 시의 입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KCC건설이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선보인 '왕십리 KCC 스위첸'은 무학봉 근린공원 산책로가 단지와 연결돼 있다. 공원 내 조성된 배드민턴장과 농구장, 체육시설물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에 적용될 개방형 진출·입구.

또 서한이 대구 북구 금호동에서 분양 중인 '금호신도시 서한이다음'은 지구 내 들어서는 4만여㎡ 규모의 팔거근린공원과 맞닿아 있다. 특히 팔거근린공원 산책로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지 내 힐링로드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이선욱기자

마녀 남친의 스마트 로맨스

주말로 다가온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남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순히 사탕만 선물했다간 여자 친구가 실망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고민을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로맨틱하면서도 실용성까지 갖춘 IT기기를 소개한다.

화이트데이 IT선물 추천

▶인스탁스 미니25 캐스키드슨

소중한 추억을 재미있게 남길 수 있는 즉석카메라를 선물해보면 어떨까. '인스탁스 미니25 캐스키드슨'은 영국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캐스키드슨 특유의 꽃무늬를 접목시켜 여성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제품이다. 인스탁스의 고유한 아날로그 감성과 실용성도 뛰어나다. 특히 16일까지 인스탁스를 구입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품 등록을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리조트 숙박권, 포토북 할인권 등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다이어트 돕는 핏빗(Fitbit)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여자친구라면 웨어러블 기기 '핏빗(Fitbit)'이 제격이다. 이 제품은 활동량부터 섭취, 소모 칼로리 같은 식생활 습관까지 계산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것이 장점이다. 아이폰은 물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어 편하다.

▶로지텍 X100 모바일 스피커

음악 감상이 취미인 여자친구라면 블루투스 스피커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로지텍코리아의 '로지텍 X100 모바일 스피커'는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로 언제 어디서나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내장형 마이크를 갖춰 핸즈프리 통화가 가능하다.

스피커 본체 상단의 버튼으로 간단히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스트랩 줄을 탑재하고 있어 휴대하는 것도 편리하다.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메이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휴대전화 케이스를 선물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사 디자인메이커는 주문 제작이 가능한 '디자인메이커 이니셜 라벨 & 트렌드 컬러 케이스(사진)'를 판매 중이다.

/이국명기자 kmlee@

블소, 콘솔공화국 뚫을까

엔씨 대표 온라인 게임 5월 20일 일본 서비스

국내 간판 게임사 엔씨소프트가 토종 온라인게임 '블레이드&소울'(이하 '블소')로 열도를 공략한다. 5월 20일 일본 정식 서비스를 확정한 것이다.

일본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위'의 안방인 만큼 콘솔게임 영향력이 워낙 커 온라인게임이 버티기 쉽지 않은 독특한 시장이다. 글로벌 온라인게임 플레이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게임조차 흥행이 되지 않은 곳이 일본이다. 콘솔게임이 주류인 북미에서도 온라인게임 비중이 서서히 커지고 있지만 일본은 예외적으로 정체기를 맞고 있다.

10일 엔씨는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요소를 소개했다. 온라인게임 '불모지'로 통하는 일본 서비스의 핵심은 '렌탈 컴퓨터'와 '애니메이션'이다.

먼저 엔씨는 일본 유저에게 블소를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PC를 대여하는 'NC게이머즈 서비스'를 실시한다. 블소와 같은 이른바 '트리플 A'급 온라인게임을 즐기려면 PC의 사양이 일정 수준을 갖춰야 하지만 일본에서는 마니아를 제외하고는 저사양 PC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엔씨는 PC를 빌려주고 2년간 요금을 분납하는 방식을 4월부터 시작한다. 단기 시 PC를 소유하거나 그 전에 별도 비용 없이 PC를 반납할 수 있어 이용 편의를 늘리고 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 다른 무기는 블소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다. 게임 출시에 맞춰 일본 공중파 TV에 블소 애니메이션을 방영해 인지도를 높인다는 전략으로 일본은 넘너노소 할 것 없이 애니메이션을 친근한 매체로 여긴다는 점에 착안했다.

블소 애니메이션은 4월 3일 TBS를 시작으로 전국 7개 채널에 방영되며 일본 현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곤조'에서 제작을 맡았다.

엔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블소 OST와 소설도 선보일 예정이다.

엔씨 관계자는 "일본 시장에 맞는 마케팅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 끝에 이 같은 선택을 했다. '리니지2'가 크게 성공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마니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엔씨표 온라인게임을 일본에서 흥행시킬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금빛 사운드 반짝반짝…듣는 통증 탈출

뜸숑 IT 리뷰-베오플레이 H3

알루미늄 무거감 못 느껴 30만원대 후반 구입 가능

덴마크 간판 브랜드 뱅앤올룹슨의 오디오 기기들은 무척 비싸지만 성능과 디자인이 워낙 뛰어나 일단 손에 넣은 뒤에는 가격에 대한 불만이 봄눈 녹듯이 사라진다.

그래도 비싼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스마트폰에 연결해 쓸 수 있는 휴대용 스피커조차 100만원대이니 어지간해선 지르기 어렵다. 그런데 베오플레이 H3 이어폰은 상대적으로 구입 부담이 덜하다. 공식 소비자가격은 43만원이지만 온라인 몰에서는 30만원대 후반에 살 수 있다.

이번에 써본 모델은 최근 출시된 골드 에디션이다. 이 제품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기본 틀이 매우 세련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 하우징이 골드 컬러로 처리돼 주위 사람의 시선을 붙잡는다.

고가의 알루미늄을 사용했기 때문인지 일반 이어폰과 달리 무게가 느껴진다.

이어폰을 착용하고 음악을 들어보면 제품의 크기를 의심하게 된다. 헤드폰 못지않은 웅장하고 풍부한 소리를 들려준다.

10.8mm의 드라이버와 초소형 베이스유닛, 소리의 누출을 최소화하는 23개의 공기구멍 덕인데 이어폰에서 낼 수 있는 궁극의 사운드를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저음, 중저음, 고음을 가리지 않고 원음을 충실히 전달한다.

이 제품의 백미는 장시간 사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 제품은 10분만 끼고 있어도 통증이 느껴지는 반면 베오플레이 H3는 귀의 모양과 굴곡을 연구해 설계된 4가지 크기의 맞춤형 이어캡을 적용해 음악을 편하게 들을 수 있다.

골드 에디션 외에 이미 나온 블랙, 레드, 실버 컬러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zen@

'롤 올스타전' 5월 파리 달군다

인비테이셔널·챌린지 전 르 제니스 아레나서 열려

전 세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전설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인다. 라이엇게임즈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LoL 올스타전 2014'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르 제니스 아레나'에서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올스타전은 각 지역별로 가장 최근에 리그 우승을 차지한 팀을 초청해 서로 대전하는 '올스타 인비테이셔널'과 팬들의 투표를 통해 선발된 지역별 대표 선수들이 함께 팀을 이뤄 대결하는 '올스타 챌린지'로 나눠 열릴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 북미, 유럽, 중국, 동남아(대만 포함) 등 LoL 정규 리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5개 지역이다. 5개 팀 중 그룹 스테이지 상위 4팀이 준결승에 진출해 결승에서 맞대결할 2팀을 가리며 최종 우승팀은 5만 달러(약 5400만원)의 상금을 거머쥐게 된다.

'올스타 인비테이셔널'에는 각 지역별로 가장 최근에 우승한 팀이 참가한다. 한국은 LoL 챔피언스 윈터 우승팀인 SKT T1 K가 출전할 예정이다.

'올스타 챌린지'는 팬 투표를 통해 5개 지역별로 2명씩, 총 10명의 대표 선수를 선발해 2팀으로 나눠 일련의 이벤트 경기를 하는 형태다. 아울러 '올스타 챌린지'에 출전할 선수뿐 아니라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할 '게임 모드'에 대해서도 투표가 별도로 진행될 계획이다. 투표 방법과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네이버 'N드라이브' 본문 검색 기능 추가

네이버의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 'N드라이브'에 보관된 문서를 본문 내 문장으로도 찾을 수 있다.

네이버는 N드라이브 이용자들이 검색 창에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문서의 본문을 찾아 검색 결과로 제공하는 '본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본문 검색은 N드라이브에 보관된 수많은 문서의 위치와 파일명을 기억하지 않아도 본문에 포함된 특정 단어만으로도 파일을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은 파일을 검색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성훈기자

똑똑한 본문검색!

하나투어리스트
마감임박
봄맞이 대잔치
모험이 가득한 세상! 동남아여행
특가 01 방콕/파타야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 299,000부터
특가 02 대만(야류,온천,화련)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679,000부터
특가 03 캄보디아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 549,000부터
특가 04 휴양지의 여왕 푸껫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6일 399,000부터
특가 05 신들의 섬 발리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6일 579,000부터
일본여행
특가 01 규슈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399,000부터
특가 02 오사카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3일/4일 499,000부터
특가 03 북해도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3일/4일 499,000부터
특가 04 오키나와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749,000부터
특가 05 아오모리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3일/4일 629,000부터
천년의 중국, 백년의 중국! 중국여행
특가 01 북경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220,000부터
특가 02 상해/항주/주가각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 249,000부터
특가 03 장사/장가계/원가계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6일 599,000부터
특가 04 곤명/석림/구향동굴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5일/6일 649,000부터
특가 05 홍콩/마카오/심천 ▶3월~4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4일/5일 569,000부터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77-1212
1600-6963
www.hanatourist.com

소스와 꼬꼬의 '풍닭' /소스와 꼬꼬 제공

'맥주 단짝' 치킨 스타일 바꿨네

꿀 버무린 허니 시리즈부터 크림소스 뿌린 파스타 치킨 꽁뒤져 먹는 풍닭 등 다양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색 메뉴를 앞세워 고객 사로잡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교촌치킨의 '허니 시리즈'는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방향성 물질 아미노산 등의 이상적인 종합 영양 성분 이외에 효소를 지니고 있는 건강 재료인 꿀을 사용해 달콤한 맛을 가미한 메뉴로 기존의 치킨과 차별화를 뒀다.

이 메뉴는 최근 종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영향으로 치맥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 상하이의 쯔딩루점에서 전체 판매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이 업계의 '레드시리즈'는 국내산 청양 홍고추만을 착즙하고 농축해 만든 소스로 맥주나 샐러드와 궁합이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뽀담허담의 '파스타 치킨'은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늘다고 한다. 닭고기 위에 얹은 진한 이탈리아 크림소스는 전분 함유량을 높인 치킨 파우더가 소스가 닿았을 때 튀김옷이 부푸는 것을 막고 소스 역시 닭고기 위에 뿌려졌을 때 적절한 점도와 염도를 유지하도록 개발돼 크림소스의 깊은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소스와 꼬꼬에서 선보인 '풍닭'은 소스에 풍덩 하고 빠뜨려서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색다른 맛을 원하는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100% 국내산 닭가슴살로 만든 바삭한 순살 치킨과 치즈 떡의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까르보나라 소스, 까르풍, 체리 토마토로 만들어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수제 소스 체리풍, 까르풍과 체리풍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핑크풍 등의 3가지 버전이 있다.

꾸덕에꾸운닭의 '사다리 치킨'과 '오다리 치킨'은 이름만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사다리 치킨은 문어 치킨으로 졸깃한 통문어와 부드럽고 고소한 닭다리 살을 이용해 만들었으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오다리 치킨은 오징어 치킨으로 오징어 다리와 닭다리 살을 이용했다.

/정해림기자 ymse@metroseoul.co.kr

불황 속 외식업계 매운맛 보여주마!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잘 팔리는 음식이 있다. 화끈하게 매운 음식들이 대표적이다. 매운맛 성분은 뇌신경을 자극해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전환에 도움을 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혈기를 틀어주는 효과도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업계와 외식업계는 '불황 극복 아이템'으로 다양한 매운맛 제품과 메뉴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놀부NBG의 인기 메뉴 중 매콤하면서도 중독성이 강한 매운 소스를 바른 '매운 마늘족발'(사진)이 있다. 매운 마늘족발은 바닥에 구워 강한 불 향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족발 깊이 배어든 매운맛 소스 특유의 풍미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건강과 미용에 좋은 슈퍼푸드 마늘과 족발의 결합으로 맛과 가능성을 동시에 잡은 '마늘족발', 먹기 좋은 사이즈에 매콤한 맛이 맥주와 잘 어울리는 '미니불족' 등도 젊은 고객층 사이에서 인기 메뉴로 꼽힌다고 한다.

굽네치킨에서 선보인 '고추 바사삭 치킨'은 치킨 표면에 청양고추를 갈아 묻혀 매콤한 맛을 내며 겉면의 바삭한 식감과 속살의 촉촉한 느낌이 조화를 이룬다. 오븐에 구워내 담백한 맛을 살렸고 고추 특유의 매콤한 맛을 살려주는 소스가 함께 제공된다. /정해림기자

백수오·견과류·청포도, 루비족 홀리네

경제력 갖춘 중년女 겨냥 건강 식품 주재료로 인기

루비족과 골드퀸 등 경제력을 갖춘 40~50대 여성이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면서 식품업계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한창이다.

올가가 최근 선보인 중년 여성을 위한 건강음료 '올바단 백수오 진사'는 백수오에 당귀 여성초를 혼합한 제품이다. 한방 성분이 함유돼 있지만 향이나 맛이 강하지 않아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다.

한국야쿠르트의 '백수오 진'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과 석류·콜라겐·혼합베리 등 중년 여성의 건강을 위한 원료가 담겼다. 인공첨가물은 넣지 않았으며 당시 알로 은은한 오미시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견과류 제품도 인기다. 초콜릿에 과육과 견과류를 넣은 프리미엄 초콜릿인 롯데제과의 '가나네이처'는 초콜릿 속에 블루베리 크랜베리 헤이즐넛을 넣은 '가나네이처 블루베리 & 헤이즐넛'과 '크랜베리 아몬드'를 넣은 '가나네이처 크랜베리 & 아몬드' 두 가지로 구성됐다. 청포도에 함유된 나린 성분과 콜리 성분은 장 운동 활성화 및 간 기능 강상 노폐물 배출 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 뷰티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푸르밀은 떠 먹는 요구르트 제품 중 국내 최초로 웰빙 과일 청포도가 함유된 '떠먹는 바이더스 청포도'를 출시했다. 이 제품에 함유된 유산균은 위산을 통과해 장까지 살아가 장 정착률이 높은 프로바이오틱 비피더스 유산균으로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식재료 다지는 간편 용기 타파웨어 '챔보 차퍼' 출시

글로벌 생활용품 브랜드 타파웨어 브랜즈는 스마트한 요리 도우미 '챔보 차퍼'(1.2ℓ)를 정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품은 견고한 최고급 스테인리스 3중 칼날은 상하 간격이 넓고 굴곡진 모양으로 디자인돼 재료를 더욱 빠르게 다져준다. 특히 커버의 손잡이를 12번 당기면 전기 없이도 270번 칼질하는 효과를 내 친환경적이다.

커버에 전용 깔때기를 끼우면 재료를 다지는 도중 커버를 열지 않고도 원하는 양만큼의 소스나 드레싱 등을 간편하게 첨가할 수 있다. 문의 홈페이지(www.tupperwarebrands.co.kr) 또는 고객 상담실(080-023-8811) /정혜인기자

블랙 다이아 수놓은 '손목 위 카리스마'

스위스 시계브랜드 SJG 한정판 '트리니티' 출시

스타브랏지 퍼플랜서비스에서 전개하는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격 스위스 시계 브랜드 SJG에서 리미티드 에디션 '트리니티'를 출시한다.

47㎜의 오버 사이즈 베젤에 세팅된 51조각의 블랙 다이아몬드가 특징인 '트리니티'는 태양처럼 강렬한 인상을 주는 붉은색 다이얼에 세 개의 다리, 세 개의 날개, 세 개의 깃털을 가진 불멸의 존재인 고구려 신화 속 '삼족오'를 모티브로 디자인됐으며 스크래치도 외부의 충격에 강한 사파이어 크리스털 글라스, 스위스 무브먼트의 정교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스켈레톤 케이스백 그리고 레드 스티치로 포인트를 준 이탈리아 가죽 스트랩, 3ATM 방수가 특징이다.

스위스에서 30개로 한정 생산된 이 특별한 제품은 일론 존 데이비드 베컴, 제니퍼 로페즈 등이 사랑하는 럭셔리 시계·보석 디자인 회사인 '게이린&코'를 통해 삼족오를 오마주해 제작됐다. 품격을 높여줄 특별한 선물인 SJG 트리니티 리미티드 에디션은 롯데백화점 본점 및 청와대 사랑채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3-0368 /황백연기자 h.kuna0404@

힙합·타투 감성에 취한 술

보드카·위스키 '젊은 문화' 소통 마케팅 눈길

최근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감성 마케팅이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항상 노출돼 있는 20~30대 젊은층은 제품이 가진 감성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소비자와 브랜드가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20~30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동영상 광고는 기본이고, 다양한 업계에서 유행어와 비주얼 등 최근 유행하는 문화 코드를 접목해 젊은층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보드카 브랜드 '스미노프'는 최근 힙합 스타 박재범, 아티스트 권민아, 스타일리스트 김하늘과 함께 귀요미(GYM), 짱짱맨(JJM), 안알랴줌(AARJ), 해블라고(HBRG), 오글오글(OGOG) 등 젊은층이 즐겨 쓰는 9가지 유행어를 염둔 이니셜로 표현해 젊은층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 스냅백은 모자 멀티숍 브랜드 '햇츠온(Hat's On)'에서 한정판으로 제작해 스미노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됐으며 5000여명이 참여해 감성적인 소통을 이끌어냈다.

제이앤비(J&B) 타투 스페셜 에디션은 클래식한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위스키의 틀을 깨고, 젊은 층이 유쾌하게 즐기는 위스키라는 콘셉트를 감각적으로 디자인했다. J&B 위스키병 전체에 과감한 타투 패턴을 새겨 넣고 열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핑크·그린·블루·오렌지·옐로·퍼플 등 총 6가지의 다른 병 디자인이 있다. 클럽이나 바에서 UV 조명을 받으면 숨겨진 J&B 패턴이 나타나며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 컵커피 패키지엔 아트 콜라보

매일유업의 커피 브랜드 바리스타는 6인의 아티스트와 함께 '스페셜 아티스트 패키지' 한정판을 출시했다. 뉴비주얼 아티스트 신덕호, 몬스터즈를 세계에 알린 창작 집단 스티키몬스터랩, 그림일기로 인터넷 스타 1세대를 연 이다 등 6인의 아티스트는 바리스타가 지향하는 가치와 문화에 영감을 받아 각자의 개성이 담긴 바리스타 병 라벨을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스타일로 완성했다.

/정주희기자 jcom@metroseoul.co.kr

버버리 "쌍방울 속옷도 유죄"

자사 체크무늬 도용 주장 LG패션 이어 또 손배소송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LG패션에 이어 쌍방울을 상대로 한 법정 소송에 나선다.

버버리는 쌍방울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트라이(TRY) 브랜드의 속옷 제품이 자사의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해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버버리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속옷 제품을 발견해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쌍방울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버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단과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쌍방울에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쌍방울 측은 현재 법무팀과 검토 중이며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버리 체크 무늬(왼쪽)와 쌍방울의 체크 무늬 속옷 /연합뉴스

이에 앞서 LG패션은 버버리와 체크 무늬 송사에 휘말리며 망신당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버버리는 지난해 2월 LG패션이 전개하는 닥스의 남성 셔츠가 버버리 체크 무늬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제조·판매 중단과 함께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LG패션이 버버리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버버리는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철회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에 양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일단락됐다.

/김학철기자

"초콜릿에 예쁜 사진 새겨 드려요" 휴플러스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초콜릿에 사진을 넣어 제작할 수 있는 상품을 휴플러스 판타싯 쇼핑몰을 통해 주문·제작해 판매한다. 제품은 포토초콜릿, 달력초콜릿, 디자인초콜릿 등 총 6가지 타입으로 제작 가능하며 가격은 1만9000원부터 4만6000원까지다. /휴플러스 제공

기차 타고 무박2일 음악여행

14일 서울~강릉 400명 참가 티몬·페이스북 공연 생중계

화이트데이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무박 2일 일정으로 음악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약 4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기차 하나를 통째로 빌렸다.

'통째로 빌렸다' 시리즈는 관광과 축제, 예술과 낭만, 놀이와 교육, 서울과 강릉이 만나는 이색 소셜 여행으로 하나의 주제를 정해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대학생 벤처회사 비트윈이 진행하는 네트워킹 여행이다.

특히 이번 여행은 다른 여행 패키지처럼 도착지에서의 프로그램이 중심을 이룬 것과는 다르게 기차 안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차 안 현장에서 사연을 읽어주고 신청곡을 틀어주는 '달리는 라디오', 인디밴드와 실용음악과 학생이 연주하는 '라이브 트레인' 등이 준비돼 있다.

'통째로 빌렸다'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마련됐다. 이번 여행의 기획을 맡은 이재선 학생은 "이번 기차 여행을 통해 많은 인디 뮤지션들과 각 대학의 실용음악과 학생들, 일반인이 네트워킹이 연결돼 실력은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행은 티켓몬스터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여행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김학철기자

한우곰탕·한돈 등심 돈가스 30% 할인

강강술래 알뜰 고객 손짓 홈피 경품 이벤트도 진행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식품 파격할인행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600㎖×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0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100% 국내산 돼지의 등심 부위로 만든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는 3만1500원, 자연산 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는 3만7800원에 각각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국내산 돼지고기 70%에 비타민E와 아미노산이 풍부한 흑임자를 넣은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3박스) 2만5200원과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찰진한우떡갈비'(360g×3박스·4만2000원)도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릿살로 만든 5종 수제 모듬 소시지(385g×4세트)는 21% 할인된 1만5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는 30% 할인된 2만5200원에 판매한다. 주문은 온라인 쇼핑몰(www.sullaemall.com)과 전화(080-925-9292)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댓글을 남기면 요일별 4주 프로그램 등 운동기구가 필요 없는 체지방 감량 프로그램 소개서 '간고등어 코치 흐엘스 무작정 따라하기'와 아순신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주는 역사 칼럼니스트 박종평의 '진심진력'을 증정한다. 또 신림점은 28일까지 주중에 한우스페셜 모둠구이 양념등심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한다.

/황재용기자 hjung0404@

17일 맥도날드 에그 맥머핀 30만개 무료 제공

맥도날드가 오는 17일 오전 7시부터 전국 300여 개 맥도날드 맥모닝 판매 매장에서 인기 아침 메뉴인 에그 맥머핀 30만 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셔널 브렉퍼스트 데이' 행사를 두 번째로 벌인다.

또 4월 6일까지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30분까지 전국 맥도날드 맥모닝 판매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에그 맥머핀을 기존 가격인 2400원 보다 900원 더 저렴한 1500원에 즐길 수 있도록 할인 판매한다.

/황재용기자

엄홍길휴먼재단 '무료 인공관절' 후원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 대상
생활고 탓 방치한 무릎 퇴행성관절염 수술비 지원

대전에 사는 김숙희(61)씨는 최근 작은 소망이 하나 생겼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일이다. 하지만 김씨는 몇 년 전부터 느껴오던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다리 모양까지 'O'자형으로 변형되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계속되는 통증으로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바깥 출입을 포기한 채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결국 통증을 참다 못해 병원을 찾은 김씨는 뼈와 뼈 사이가 거의 맞닿은 상태인 '무릎 퇴행성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았다.

◆노년의 두려움,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관절염이란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이 외부의 충격으로 손상되거나 마모되면서 점점 닳아 없어지는 질환이다.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신경세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골 손상만으로는 통증을 느낄 수 없다. 즉 연골에 염증이 생기거나 마모로 인해 뼈와 뼈가 맞닿는 충격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환자가 대부분인 퇴행성관절염은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 초-중-말기로 구분된다. 초기와 중기 퇴행성관절염은 작은 통증이 느껴지거나 무릎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지만 말기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진다.

또 초·중기에는 간단한 주사치료나 연골 재생을 위한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진 말기 상태가 되면 손상된 연골을 인공 구조물로 바꿔주는 '인공관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남게 된다.

◆인공관절 수술비용 큰 부담

인공관절 수술은 완전히 닳아 없어진 연골을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로 바꿔주는 수술이다. 환자의 특성에 따라 여성의 골격에 맞춘 여성형 인공관절, 운동각도를 늘린 고굴곡 인공관절, 환자의 골격 모양을 정확히 맞춘 맞춤형 인공관절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술 후에는 꾸준한 재활과 운동을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술비에 부담을 느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쪽 무릎만 수술받으면 200만~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양쪽 모두 시행할 경우에는 약 500만원 이상의 수술비가 발생된다. 또 수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비 등이 부담된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환자라면 그 비용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소외계층 환자에 새삶 선물

이런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통증을 참으면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산악인 엄홍길(사진) 대장이 설립한 '엄홍길휴먼재단'이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 대상이며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본인의 어려운 사연과 증상 등을 접수하면 된다.

/유재웅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우측 후원캠페인 배너를 통해 신청

미세먼지 속 꽃피부 숨막혀!

봄철 외출후 바로 클렌징
여드름 기능성 제품 도움

올봄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이어 평년보다 빈번한 황사와 꽃가루 등으로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무엇보다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 최근 황사에 섞여 있는 미세먼지에는 유독성 화학물과 중금속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에 자극을 주며 피부에 들러붙고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 신진대사가 약해져 피지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피부 스스로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은 잃게 돼 피부 컨디션을 무너뜨리기 쉽다. 피부 회복을 위해 외출 후에는 낮 동안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미세먼지 등을 가급적 빨리 저자극 클렌저로 꼼꼼히 이중 세안을 하도록 한다.

피부 트러블이 지속된다면 피지 조절 성분이 함유된 전용 제품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 피부 문제를 진정시키도록 한다. 손으로 짜다가 모공 벽을 손상시키고 세균이 침투돼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운세상 코스메틱 닥터지의 '에이 클리어 3 스텝'은 여드름성 피부 적합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트러블 고민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제품이다.

여드름의 근본 원인인 박테리아를 제거해 솟아날 여드름을 미리미리 치료하면 보다 깨끗하고 맑은 피부로 관리할 수 있다.

트리아뷰티의 '스킨 퍼펙팅 블루 라이트'는 전문 클리닉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블루라이트 테라피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 여드름의 근본 원인인 피부 속 박테리아를 제거해주는 가정용 여드름 치료기다.

/정해민기자 [illegible]

봄날 대청소하다 척추 겨울날 올라

무거운 짐 들어올릴 때 허리 함께 다리 굽히고
쪼그려 앉아 걸레질 No! 선 자세로 밀대 사용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사와 대청소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하지만 무리한 노동은 새 출발, 새 단장의 설렘 대신 척추 관절 통증만을 남기기도 한다. 봄맞이 이사와 대청소 시 조금만 조심하면 척추관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다 허리가 삐끗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바닥에 놓인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주의해야 한다. 양쪽 다리는 편 채 허리만 굽혀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세에서는 허리가 심하게 굴곡된 상태에서 힘이 가해진다. 그 충격이 고스란히 추간판으로 전해져 허리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척추 부상 및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들 때 무릎을 먼저 굽히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 옮기는 것이 좋다. 또 옮길 물건은 최대한 몸에 가까이 붙여 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크고 무거운 물건이라면 무리하지 말고 여러 명이 함께 옮기는 것이 허리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대청소처럼 한번에 많은 양의 집안일을 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쪼그려 앉은 채로 걸레질을 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 척추는 물론 관절에도 부담을 줘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을 유발한다. 특히 평소 무릎이나 어깨, 척추 등이 자주 쑤시고 아픈 주부들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집안일을 할 때 신경 써서 허리를 굽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걸레질을 할 때는 쪼그려서 하기보다 밀대를 사용하고 설거지나 세탁기 사용을 할 때 자신의 키와 맞지 않는다면 발 받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림질은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다림질 받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청소를 하면서 15분마다 자세를 바꾸고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야 한다.

대청소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찜질로 뭉친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 여성의 경우 근육의 양이 남성의 3분의 2 수준이기 때문에 무리한 가사노동 후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척추 관절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다.

/황재용기자

metro Russia

metro Brazil

metro France

metro HongKong

Столетние фан...
покажут на вы...

Haddad quer tira...
antigos de circu...

10년 이상 된 버스 운행 금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낡은 버스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페르난두 아다지 상파울루 시장이 "운행 연수가 10년 이상 된 버스의 운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아다지 시장과 현지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상파울루시에는 2003년도에 생산돼 10년의 연수를 넘긴 버스 933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새 법규에 따라 앞으로 버스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운행은 불가능하다.

Délinquance : les "vols par ruse" auraient diminué à Paris

각종 사기관련 범죄 줄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각종 사기와 관련된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올해 1월에 가짜 수리공, 가짜 노숙자 숙소 직원, 가짜 경찰 등 각종 사기로 인한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7% 줄어든 것. 파리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사기와 관련된 범죄는 4.9% 감소했다. 경찰청은 "신분을 속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 용의자들은 주로 나이가 많거나 어려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설명했다.

교수 컴퓨터 해킹 성적 수정해 학위

중국인 유학생 덜미

미국 퍼듀대학교를 졸업한 중국인 유학생이 교수 컴퓨터를 해킹, 성적을 수정한 혐의로 학위를 박탈당했다고 7일 메트로 홍콩이 전했다.

퍼듀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한 쑨자오란(孫兆然)은 여러 차례 교수의 컴퓨터에 침입해 자신의 성적을 고쳤고, 이렇게 만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졸업 후 보스턴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게 됐다.

하지만 이 '똑똑한' 청년은 성적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지 법원에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결국 그는 퍼듀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박탈당했고 보스턴대학교에서도 제명됐다. 또한 다른 퍼듀대학교 유학생 두 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현지 법원은 이들에게 컴퓨터 해킹, 절도, 공모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쑨자오란은 2008년 5월부터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 F 9개, 미수료 1개가 모두 A로 바뀌었다.

이들은 자신의 인터넷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을 주목한 교수로 인해 덜미를 잡히게 됐다. 검찰은 처음에 로그인 기록이 수상한 일본계 유학생 미즈모시 시로사키를 조사했다. 그러나 미즈모시는 교수 컴퓨터 해킹 방법을 쑨자오란에게 배웠다고 실토했다.

이들은 먼저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사무실에 들어가 교수의 키보드를 동일한 모델의 다른 키보드로 바꿨다. 이 키보드에는 키 입력값을 빼내는 키로깅(key logging) 장치를 설치했다. 학생들은 이렇게 빼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교수의 컴퓨터에 접속해 성적을 고쳤다.

/정리=조선미기자

모스크바에 초콜릿 박물관 등장

생산 설비서 115년 된 초콜릿 바까지 전시해 '눈길'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 초콜릿의 역사와 문화, 생산 기기, 초콜릿 상자, 체험 공간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초콜릿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초콜릿, 사탕, 캐러멜 등을 만드는 현대식 생산 설비는 물론 귀족들이 즐겨 먹던 옛 초콜릿과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수제 초콜릿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시품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115년 된 초콜릿 바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영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한다.

'미르(세계) 초콜릿' 박물관의 예브게니 관장은 "초콜릿 박물관에서는 여러 수집가들이 수십 년 이상 수집한 초콜릿, 상자, 몰드 등 다양한 전시물을 볼 수 있다"며 "관련 물품은 경매를 통해서 사거나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혁명 전에 생산된 프랄린(설탕에 졸인 견과류)을 아주 오래된 수제 초콜릿 공장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오래된 다락방에서 사탕 포장지를 찾기도 했다"며 "예전엔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예브게니 관장은 "제정 러시아 시대에 빅토르 바스네초프, 알렉산드르 베누아 등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초콜릿 포장지와 상자에 그림을 그려 넣었다"며 "예술적 가치도 매우 높은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했다.

박물관에는 중요한 초콜릿 박스 속에 함께 들어있던 엽서와 다른 기념품도 전시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예브게니 관장은 "초콜릿 통에 든 엽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점들이 많다"며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초콜릿은 아주 묽은 시럽 형태로 차와 곁들여 먹는 음식이었으며 16세기의 초콜릿은 포르투갈에서만 생산돼 초콜릿 제조 레시피를 누설하는 자는 극형에 처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박물관에서는 러시아의 초콜릿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다"며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생산된 초콜릿과 사탕 등이 전시돼 있다"고 했다.

한편 초콜릿 박물관은 어린이들이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볼 수 있는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쪽에 마련된 카페에서는 다양한 초콜릿 음료도 판매한다.

/다리야 부바노바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이젠 액션연기도 욕심나요… 하하"

'왕가네 식구들' 마친 이윤지

검고 동그란 눈과 귀여운 외모. 바로 배우 이윤지(30)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이미지다.

여기에 곱하고 바른 성품, 개성있는 연기, 거짓 없는 솔직함도 갖추고 있다. 덕분에 2003년 MBC 시트콤 '논스톱4'로 데뷔해 쉼없이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2012년에는 MBC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상 부부의 모습, 최근 종영한 드라마 '왕가네 식구들' 이후에도 호평이 이어졌다. 데뷔 11년차를 맞은 이윤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 "홀가분하고 감사하다"

국민 드라마 반열에 오른 '왕가네 식구들'은 5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리에 종영했다. 그는 작품을 끝낸 소감을 "홀가분하다"고 표현했다.

"높은 시청률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라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부담감도 커졌죠. 제 실수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겼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즐겁게 촬영해서 홀가분해요."

'유부녀' 연기에 도전한 이윤지는 극중 개소리, '만취' '답답이' 등 갖가지 수식어를 얻으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이병준 선생님과의 술 대결 장면 역시 보리차였는데 마음속으로 '이건 술이다' 하고 마시니까 진짜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주량이 소주 한 병 정도인데 당시 받았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기도 했어요. 다만 술버릇은 광박이와 달리 조용히 잠을 자는 성격이에요. 특히 개소리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소리를 녹음해 들으면서 연습했죠. (웃음)"

극중 마지막 회에 등장한 30년 후의 모습은 엉뚱하지만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나문희 선생님을 비롯해 장용·김해숙 선생님 등 대선배님들을 보면서 목표가 뚜렷해졌어요. 30대에는 드라마를 넘어 영화 등 다양한 활동을, 40대에는 두 명의 자식을 낳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베풀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중 3때 연기자 결심

이윤지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차곡차곡 연기력을 쌓아왔다.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보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2010년 방영된 MBC 드라마 '민들레 가족'에서는 털털한 성격이지만 필요하면 여우 같은 모습으로,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에서는 집안의 반대에도 중졸 파격 남자와 결혼에 성공하는 왕광박 역을 맡아 젊은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부녀 열연 '답답이' 등 수식어 끝나니 홀가분 술버릇 잠자기

그는 "아나운서와 라디오 DJ 등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많았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연기자가 돼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배우는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수 있고 그들의 삶도 간접적으로 살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연기를 하면서 꿈이 동시에 진행되는 느낌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작정 작품을 선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는 "내가 공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캐릭터가 나타났을 때 선택했다"며 "흥행보다는 연기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흥행되는 작품을 보는 눈은 없다"며 활짝 웃었다.

이어 "'왕가네 식구들' 문영남 작가님도 그렇고 시나리오를 받고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손이 움직이는 대본을 만났을 때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일까.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이윤지의 차기작이 궁금해졌다.

"아직 확정된 작품은 없어요. '왕가네 식구들'을 통해 우리 일상을 표현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작품에 출연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메디컬과 범죄 수사극 등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다리가 들지만 액션 연기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하하."

/[illegible]기자

사진/나무엑터스 제공 디자인/[illegible]

'나는 가수다' 모방 '불후의 명곡' 스토리의 힘으로

불후의 명곡

'아빠! 어디가?' 비슷한 '슈퍼맨' 캐릭터의 힘으로

슈퍼맨이 돌아왔다

'원조' 잡는 '아류' 예능 여기 있소

불후의 명곡(이하 불명)'과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가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두 프로그램의 선전이 의미 있는 이유는 각각 MBC '나는 가수다'와 '아빠! 어디가?'의 아류라는 비판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명'의 힘은 스토리에 있다. 장부자 홍은희·오만석 등이 출연한 배우 특집과 국악소녀 송소희와 김종서 등이 출연해 무대를 꾸민 3·1절 특집 등은 시청자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하며 호평받았다.

'불명'은 초반 그룹 샤이니의 종현, 씨스타의 효린 등이 출연하며 '나는 가수다'의 아이돌 버전으로 등장했다. 당시 권재영 PD는 "노래 잘하는 아이돌이 많다. 이들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가수와 시청자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제작 동기를 밝혔다.

'슈퍼맨'은 다양한 육아법을 재미있게 보여주면서 예능 이상의 프로그램을 능가하는 캐릭터의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성훈의 딸 추사랑부터 쌍둥이 서언·서준이 아빠 이휘재, 장현성의 두 아들 준우·준서, 타블로의 딸 하루까지 각기 다른 유형의 자녀와 네 아빠가 48시간 동안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담아낸다.

강봉규 PD는 '아빠! 어디가?'와 비슷하다는 지적에 "여행 같은 일회성 설정이 아닌 일상을 담고 있다. 아빠와 아이들의 관계, 아빠의 역할, 가족 관계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불명' 배우 특집은 시청률 12.8%, '슈퍼맨'은 지난 9일 10.9%(이상 닐슨코리아 기준)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오르며 주말 예능 왕좌를 노리고 있다.

/권보람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걸그룹 티아라 지연·효민 스타일 다른 솔로 앨범 출시

걸그룹 티아라 지연과 효민이 솔로로 변신한다.

10일 티아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연과 효민 두 멤버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솔로 앨범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지연과 효민의 솔로 앨범은 작곡가·뮤직비디오 감독·안무가·스타일리스트 등 각각 다른 매니지먼트의 스태프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제작된다.

지연은 걸스데이의 '썸씽', 씨스타의 '기브 잇 투 미', '러빙 유' 등을 만든 작곡가 이단옆차기와 손을 잡았다. 효민은 선미의 '보름달', 효린의 '너밖에 몰라', 씨스타의 '나혼자' 등을 만든 작곡가 용감한형제의 곡을 들고 출격한다.

지연은 다비치·틴탑·선미 등의 스타일을 맡고 있는 임수정 스타일리스트, 효민은 씨스타·에이핑크 등을 담당했으며 현재 티아라의 스타일을 맡고 있는 이은이 스타일리스트와 호흡을 맞춘다.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지연은 다음 달 중 솔로 앨범을 발표하며 뒤이어 효민이 솔로로 출격한다. /유순호기자

성동일 '갑동이'서 형사 캐스팅

배우 성동일이 '응답하라1994'에 이어 '갑동이'로 또 한 번 주말 밤을 책임진다.

다음달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tvN 새 금토드라마 '갑동이'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미스터리 감성 추적극이다. 20년 전 기상 도시 일탄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갑동이와 그를 추적하는 형사 하무염과 갑동이에 대해 저마다 사연을 지닌 인물들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성동일은 극중 일탄경찰서 형사 과장 양철곤 역을 맡았다. 양 형사는 갑동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그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인물로 현재 같은 서에서 근무하는 하무염(윤상현)의 아버지를 과거에 유력 용의자로 몰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성동일과 윤상현은 함께 갑동이를 추적하면서 질긴 인연의 끈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희준 PD는 "성동일의 섬뜩하면서도 폭발적인 연기를 기대하셔도 좋다"며 "악연으로 연결된 성동일과 윤상현의 긴장감 넘치는 대결 구도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illegible]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온 엠블랙

남성 아이돌 그룹 엠블랙이 7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다.

이들은 24일 여섯 번째 미니앨범 '브로큰'을 발표한다. 10일 공개한 콘셉트 이미지에는 산산이 부서진 유리 액자와 날카롭게 깨진 배경과는 상반되는 멤버들의 시크하면서도 강한 모습이 강렬한 느낌을 준다.

함께 공개된 개인 컷에서는 사랑에 상처 입은 마음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몽환적인 이미지로 표현됐다. 깨진 사랑 속에서 슬픔보다 차가우면서 남자다운 눈빛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앨범의 콘셉트라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유순호기자 [illegible]

또 컴백설 휩싸인 싸이

가수 싸이(사진)가 또다시 컴백설에 휩싸였다.

싸이의 컴백설은 올 초부터 꾸준히 언급돼왔다. 지난달 한 매체가 2월 중 싸이가 컴백한다고 밝힌 데 이어 10일 역시 싸이가 2NE1에 이어 2014년 YG엔터테인먼트 두 번째 주자로 활동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싸이가 이미 지난 1월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하고 미국 힙합 거장 스눕독과의 협업 인증샷을 게재하며 컴백을 예고했으니 본격적인 컴백 일정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이처럼 싸이 컴백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음악 시장이 관심을 보이고 있단 점에서 싸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강남스타일'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말춤 열풍을 불러온 데 이어 지난해 '젠틀맨'을 발표하고 또다시 흥행을 이끌었다. 특히 '젠틀맨'은 방송 활동 없이 각종 음악 방송 1위를 싹쓸이하는 것은 물론 음원차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물론 컴백을 준비하는 싸이의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컴백할 경우 가요계는 또다시 지각변동을 겪을 전망이다.

소녀시대와 2NE1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요계에 싸이가 본격 컴백을 선언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순호기자 [illegible]

레드카펫 밟는 수현

'어벤저스2' 일정 위해 출국

배우 수현이 영화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저스2')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수현은 오는 13일 영화 '캡틴 아메리카2' 글로벌 프리미어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오후 3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날 수현은 "실감이 잘 안 난다"며 "팬들이 기뻐해줘서 감사하다"고 캐스팅 소감을 밝혔다. 지난 5월 '어벤저스2' 제작을 맡은 마블 스튜디오는 수현을 캐스팅했다고 알려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어벤저스2'는 조스 웨던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전작에 이어 '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토르'의 크리스 헴스워스, '어벤저스'에서 헐크 역할을 맡은 마크 러팔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의 크리스 에번스와 스칼릿 조핸슨, 새뮤얼 L. 잭슨이 출연한다.

/김지민기자

스크린셀러로 불리는 베스트셀러 소설 원작의 영화들이 이달 차례대로 관객과 만난다. 왼쪽부터 '우아한 거짓말' '노아' '트리쉬나'

인기소설 원작 '우아한 거짓말' '트리쉬나' 등 잇따라 관객맞이

'스크린셀러' 열풍 쭈~욱

지난 몇 년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스크린셀러(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열풍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달 한국 영화 '우아한 거짓말'과 외화 '트리쉬나' '노아'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등 탄탄한 작품성의 소설이나 만화 원작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대거 개봉을 앞두고 있다.

13일 개봉 예정인 '우아한 거짓말'은 2009년 출간된 김려령의 동명 베스트셀러가 원작이다. 이유 말 없이 세상을 떠난 열네살 소녀 천지(김향기)가 숨겨놓은 비밀을 찾아가는 엄마 현숙(김희애)과 언니 만지(고아성), 그리고 친구 화연(김유정) 및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김희애가 21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해 화제를 모으는 작품이다. 유아인이 수상한 영전 총각 역으로 특별 출연해 웃음을 선사한다.

20일 개봉할 '트리쉬나'는 19세기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토머스 하디의 명작 '테스'가 원작이다. '테스'는 사랑 앞에 진실됐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애잔한 슬픔과 감동을 자아낸 사랑 이야기다.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에 빛나는 마이클 윈터바텀 감독이 현대 인도를 배경으로 부유하지만 철없는 리조트 사장의 아들 제이와 볼리우드 댄서를 꿈꾸는 가난한 오토릭샤 운전사의 딸 트리쉬나의 운명적인 사랑과 파멸을 그리며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아냈다.

같은 날 개봉 예정인 재난 블록버스터 '노아'는 성경 속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토대로 했다. '블랙 스완'의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직접 이야기를 쓰고 만화가 니코 앙리숑이 그림을 그려 2011년 발간한 그래픽 노블 '노아' 1권을 스크린으로 옮겼다. 러셀 크로, 제니퍼 코넬리, 엠마 왓슨, 안소니 홉킨스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출연한다.

26일 개봉을 앞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는 '아이언맨' '인크레더블 헐크' '토르' '어벤져스' 등을 영화로 만들어 히트시킨 마블 코믹스의 동명의 만화에서 탄생했다. 2011년에 개봉한 '퍼스트 어벤져'의 후속작으로 무대를 현대로 바꿔 한층 더 다이내믹한 스케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설국열차'로 국내 관객에게 익숙한 크리스 에반스가 캡틴 아메리카 역으로 등장하며, 스칼렛 요한슨이 블랙 위도로 출연한다.

이 밖에도 올해에는 김애란 작가의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방황하는 칼날',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 '허삼관매혈기' 등이 영화로 탄생할 예정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두형기자 tuk0427@metroseoul.co.kr

홍석천·하리수 성소수자 영화제 집행위원

방송인 홍석천(왼쪽 사진)과 가수 하리수(오른쪽)가 성소수자를 위한 영화제의 집행위원으로 나선다.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영화 인사인 이들은 6월 4~10일 서울아트시네마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릴 서울LGBT영화제의 집행위원으로 위촉됐다.

영화제 측은 "최근 JTBC '마녀사냥' 에서 '큐 게이'로 맹활약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홍석천과 2001년 데뷔 후 10년 넘게 각종 방송과 가수 활동, 영화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하리수가 집행위원이 된 것은 서울LGBT영화제가 더 많은 대중과 호흡하면서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박준용기자

'300: 제국의 부활' 이름값!

개봉 첫주 박스오피스 1위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액션 블록버스터 '300'의 속편인 '300: 제국의 부활'(사진)이 개봉 첫 주 극장가를 장악했다.

1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6일 개봉한 이 영화는 9일 하루 동안 23만5637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수는 78만2906명이다.

영화는 페르시아 해군과 그리스 해군의 전설적인 전투인 살라미스 전투를 다룬다. 2007년 국내 개봉한 전편은 292만 관객을 동원했다.

한편 '300: 제국의 부활'의 선전으로 현재 리암 니슨의 액션 영화 '논스톱'(15만4591명)은 박스오피스 2위로 밀려났다. '수상한 그녀'(5만7435명)는 개봉 세 달째에도 여전히 3위를 고수 중이다.

/박준용기자

대학 강단서는 설경구

한양대 연영과 특임교수 임명

배우 설경구(사진)가 대학 강단에 선다.

한양대는 설경구를 예술체육대 연극영화학과 특임교수로 임용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양대 연극영화과 출신인 설경구는 모교에서 이달부터 약 1년간 강단에 설 예정이다.

한양대 측은 "연극영화과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할 인사로 영화계에서 연기파 배우로 인정받는 설경구를 교수로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설경구는 1993년 연극 '심바새매'로 데뷔한 후 '해운대' '실미도' '타워' '감시자들' 등 다수의 영화를 통해 관객을 만났다. 현재 영화 '나의 독재자', '루포로' 등에 캐스팅돼 촬영을 앞두고 있다.

/박준용기자

김윤석·정우 등 4명 영화 '쎄시봉'서 2인 1역

배우 김윤석·김희애·정우·한효주가 영화 '쎄시봉'에서 뭉친다.

이 영화는 한국 음악계에 포크 열풍을 일으킨 조영남, 윤형주, 송창식, 이장희 등을 배출한 음악감상실 쎄시봉을 배경으로, 전설의 듀엣 트윈폴리오의 탄생 비화와 그들의 뮤즈를 둘러싼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트윈폴리오가 3명의 트리오로 구성돼 있었다는 가정에서 만들어졌다.

트윈폴리오의 제3의 인물 오근태 역으로 정우와 김윤석, '쎄시봉'의 뮤즈 민자영 역으로 한효주와 김희애가 출연한다. 이들은 오근태와 민자영의 대학생 시절과 20년 후의 2인 1역을 연기한다.

'광식이 동생 광태' '시라노; 연애조작단' 등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뛰어난 연출력을 선보인 김현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는 5월에 촬영에 들어가 겨울에 개봉할 예정이다.

/박준용기자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영화 '쎄시봉'에 출연하는 김윤석, 정우, 한효주

두 자매 결혼관 "공감가네"

'세결여' 이지아 "당당하고 적극적인 사랑"···엄지원 "동거 선택"

배우 이지아와 엄지원의 결혼관에 시청자가 공감하고 있다.

SBS 주말극 '세 번 결혼하는 여자'(이하 '세결여')에서 오은수(이지아)와 오현수(엄지원)는 똑소리 나는 자매로 출연하며 사랑과 결혼, 이혼과 재혼 등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오은수는 엄마와 여자로서의 행복을 모두 누리고자 한다. 재혼 과정에서 전남편 정태원(송창의)에게 새 남편 김준구(하석진)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재혼 후 남편의 외도로 임신 중임에도 이혼을 하려는 등 주체적이고 당당한 적극적인 사랑관을 지녔다.

이지아는 인터뷰에서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크다"며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사랑 앞에 누구보다 당당하고 강한 여자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오은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오은수의 언니 오현수(엄지원)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다. 15년 동안 짝사랑하던 안광모(조한선)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사랑을 이뤘지만 오현수는 "우리 결혼이라는 수갑을 채우고 구속하는 거 하지 말자"며 결혼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놓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공식적인 동거 생활을 그려내고 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게시판을 통해 "현수의 당찬 면모를 보면 동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로서의 행복을 원했던 은수의 재혼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매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등 오은수·현수 자매의 결혼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신효원기자 @metroseoul.co.kr

SBS 주말극 '세 번 결혼하는 여자'의 조한선·엄지원 커플(왼쪽)과 송창의·이지아 커플. /SBS 제공

"김수현 보자" 中 공항에 수천명

'최강대뇌' 녹화차 방문

배우 김수현(사진)이 중국에서 뜨거운 인기를 체감하고 돌아왔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10일 "김수현이 8일 중국 장쑤위성TV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최강대뇌-더 브레인'(이하 '최강대뇌') 녹화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8일 이른 아침 장쑤위성TV 측에서 제공한 전용기로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한 김수현은 당일 오전 중국 난징 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김수현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하루 전부터 현지 팬 수천 명이 난징 공항으로 몰려들었고, 공항에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600여 명의 보안요원이 투입됐다.

김수현은 난징 공항에서 곧바로 '최강대뇌' 녹화 현장으로 이동해 방청객 1600여 명의 뜨거운 환영 속에서 녹화를 시작했다. 함께 초대된 장바이즈(장백지) 등 중화권 최고의 게스트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녹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화 현장에 들어오지 못한 팬들이 공항으로 이동하는 김수현을 보기 위해 방송국 주변으로 수백 m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열렬한 환영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박지원기자

지진희 "저보다 박서준이 엄정화와 더 잘 어울려"

"저보다 서준이가 정화 누나랑 더 잘 어울리는데요."

배우 지진희(사진)가 tvN 새 드라마 '마녀의 연애'에서 열네 살 나이차의 연상 연하 커플로 등장하는 엄정화와 박서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지진희는 최근 인터뷰에서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지진희와 '마녀의 연애'에 등장하는 박서준 중 누가 더 엄정화와 잘 어울리느냐는 질문에 "서준이가 더 잘 어울린다"고 답했다.

엄정화는 지난 2009년 '결혼 못하는 남자'에서 지진희와 호흡을 맞춘 바 있으며, 박서준은 최근 종영한 SBS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지진희의 처남으로 등장했다.

지진희는 "내가 정화 누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여서인지 사람들이 내가 연하인지 잘 모르더라"며 재치 있는 답변으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정화 누나는 주변 사람을 정말 잘 챙기고 서준이의 매력은 어마어마하다"며 두 사람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달 첫 방송 예정인 '마녀의 연애'는 자발적 싱글녀인 반지연과 그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연하남 윤동하의 좌충우돌 로맨스를 보여줄 예정이다.

/장서윤기자

진세연 겹치기 출연 논란

배우 진세연(사진)의 겹치기 출연이 논란이다.

KBS2 수목극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이하 '감격시대')에서 옥련 역으로 김현중과 러브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진세연이 드라마 방영 도중 차기작을 결정했다.

진세연이 선택한 차기작은 5월 초 방영 예정인 SBS '닥터 이방인'(가제)으로 헝가리 로케이션 촬영이 예정돼 있다. 진세연이 8회가 남은 '감격시대' 출연 중 차기작 촬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그는 이전에도 겹치기 논란을 겪었던 배우다. 첫 주연 작품인 SBS '내딸 꽃님이' 촬영 중 KBS2 '각시탈'을 결정했고 이후 '각시탈' 촬영 막바지에 SBS '다섯손가락'을 선택해 촬영에 나섰다.

'각시탈' 막판으로 갈수록 진세연의 분량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한 작품의 여주인공이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방송에 출연하면서 당시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탄효진기자

올 가을 결혼식을 올리는 남기협 코치(왼쪽)가 약혼자 박인비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비 "올 가을 결혼해요"

골프 여제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약혼자 남기협 코치와 올 가을 결혼식을 올린다.

10일 박인비는 "2014시즌이 끝난 뒤 한국 골프장에서 결혼식을 할 생각이었으나 날씨가 추운 관계로 하객들에게 불편을 끼칠까 시즌 중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인비는 시즌 다섯 번째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9월 11~14일)이 끝난 뒤 9월 또는 10월 중 결혼식 날짜를 잡을 예정이다.

한편 박인비는 신혼여행지로는 몰디브를 선택해 여행할 계획이다. /[illegible]기자

<SK> "3차전에 끝낸다" <오리온스> "빚 갚아주마"

프로농구 PO 진출 감독 출사표

LG "선수들 자신감 찾아" 모비스 "재밌는 승부될 것"

12일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개막을 앞두고 6개 팀 감독들이 1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 모였다. 왼쪽부터 문경은 서울 SK, 유도훈 인천 전자랜드, 유재학 울산 모비스, 추일승 고양 오리온스, 김진 창원 LG, 전창진 부산 KT 감독. /연합뉴스

우승은 우리 것.

프로농구 플레이오프(PO)가 12일 정규리그 4위 인천 전자랜드와 5위 부산 KT의 맞대결로 막이 오른다.

프로농구 6개 팀 감독들과 선수들이 10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우승에 대한 열망을 밝혔다.

17년 만에 창단 첫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창원 LG의 김진 감독은 "우리 팀의 젊은 선수들이 정규리그를 통해 자신감을 찾았다"며 "플레이오프에선 새롭다는 자세로 시작하겠다. 기회가 온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와 정규리그 1위 경쟁을 하다 2위로 시즌을 마친 울산 모비스의 유재학 감독은 "올해 정규리그가 재미있게 진행돼 팬 여러분이 좋아하셨을 것"이라며 "플레이오프도 치열하고 재미있는 승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비스의 양동근은 "4강 상대가 어느 팀이 되든 정규리그와 다른 집중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각오를 밝혔다.

12일부터 시작되는 6강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에서 맞붙는 인천 전자랜드(4위)와 부산 KT(5위)는 서로에 대한 경계를 단단히 하는 모습이었다.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은 "플레이오프는 경험이 중요하지만 열정이 강하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 KT는 우리와 팀 컬러가 비슷한데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KT 전창진 감독은 "전자랜드는 끈끈한 팀이다. [illegible] 한 경기씩 조심스럽게 잘 치르겠다"고 몸을 낮췄다.

6강에서 만나는 서울 SK(3위)와 고양 오리온스(6위)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SK 문경은 감독은 "3차전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지난 시즌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이번 시즌 오리온스에 전승을 거둬 플레이오프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오리온스 추일승 감독은 "정규리그에서 SK에 이겨보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 플레이오프에선 아쉬움을 떨쳐버리겠다. SK에 빚이 있기 때문에 갚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프로농구 6강과 4강은 5전3승제, 챔피언결정전은 7전4승제로 진행된다. 챔피언결정전이 최종 7차전까지 진행될 경우 다음달 12일에 막을 내린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류현진 호주 개막전 2선발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이 2년 연속 개막 2선발로 출격한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10일 호주 시드니의 시드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22~23일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개막 2연전에 클레이턴 커쇼(26)와 류현진을 선발 등판시킨다고 발표했다.

당초 다저스는 커쇼와 잭 그레인키(31)를 개막 시리즈에 내보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레인키가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 종아리 통증을 호소해 류현진이 자리를 메웠다. 류현진은 23일 오전 11시에 올 시즌 첫 정규리그 마운드를 밟는다.

개막 시리즈를 호주에서 치르는 다저스는 중간 휴식일이 많아졌다. 호주 원정을 마치고 다저스는 28~30일 LA 에인절스와 세 차례 시범경기를 치르고 31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정규리그 첫 본토 경기를 치른다.

다시 휴식 후 다음달 2~3일 같은 장소에서 파드리스와 2연전이 예정돼 있다. 이어 5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 개막전이 열린다. /[illegible]기자

'여자 우사인 볼트' 프레이저 간발차 1위 자메이카의 '여자 우사인 볼트' 셸리앤 프레이저(5번 레인)가 9일(현지시간) 폴란드 소포트의 에르고 아레나에서 열린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 여자 60m 결승에서 아슬아슬하게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김연아 5월 은퇴 무대

아이스쇼로 팬들과 만나

'피겨 여왕' 김연아(24·사진)가 현역 마지막 무대는 팬들을 위한 아이스쇼로 결정했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5월 4~6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특설링크에서 김연아를 비롯한 피겨 스타들이 출연하는 삼성 갤럭시 ★ 스마트에어컨 올댓스케이트 2014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아이스쇼는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응원해준 국내외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적인 현역 마지막 무대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출전한 소치 동계올림픽이 아닌 국내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아이스쇼를 은퇴식으로 마련한 이유다.

올댓스포츠는 "은퇴 무대에 걸맞은 아이스쇼 주제와 내용, 무대 구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며 "팬들이 은퇴를 축하하고, 김연아가 이에 보답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아는 이번 아이스쇼를 위해 특별히 새로운 갈라쇼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연아는 "이번 아이스쇼가 현역 은퇴 무대인 만큼 새로운 갈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싶다"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팬들이 보내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o@

더 강해진 롯데… 김시진 감독 시험대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김시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올해로 사령탑 7년차를 맞는다. 2007년 현대 유니콘스, 2009~2012년 넥센 히어로즈에 이어 2013시즌부터 롯데를 2년째 지휘하고 있다. 지난 6시즌 모두 4강에 들지 못했다. 승률 5할을 넘은 성적표는 작년(66승58패4무)이 유일했다.

우승은커녕 4강도 들지 못한 김 감독이 지휘봉을 유지하는 비결이 궁금해진다. 처음에는 너무 약체 팀을 맡았다. 그래서 성적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여기에 투수를 키우고 팀의 체질을 바꾸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 컸다. 요즘 넥센이 강한 이유도 그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다.

롯데 팬들은 작년에 억울했다. 10승 투수 3명(쉐인 유먼-크리스 옥스프링-송승준)과 30세이브 소방수(김성배)가 있었는데도 4강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정도면 4강은 기본이요 한국시리즈도 노릴 만한 전력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4강에 실패했다. 공격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주포 이대호 일본 이적, 홍성흔은 자유계약선수(FA) 이적으로 빠지면서 해결사가 없던 탓이었다.

그러나 올해 롯데는 힘이 달라졌다. 최근 10년간 롯데 전력 가운데 가장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FA 최준석과 외국인 루이스 히메네스 거구 듀오를 영입해 장타력을 보강했다. 좌완 15승 투수 장원준이 제대해 복귀했고 150km 강속구 투수 최대성도 불펜에 가세해 마운드도 강해졌다. 무엇보다 2개의 라인업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두터운 내·외야진을 구축한 것도 강점이다.

롯데는 1992년을 끝으로 21년 동안 우승컵과 인연이 닿지 않았다. 1999년 이후 14년째 한국시리즈 무대도 밟지 못했다. 사직구장 특유의 "마!" 응원에는 그런 질곡의 시간을 인내한 팬들의 한이 담겨있다. 김시진도 우승에 한이 맺힌 사람이다. 선수들은 더할 것이다. 여기에 구단의 한까지 켜켜이 쌓여있다. 왠지 올해 사직구장은 만족의 용광로가 될 것만 같다. /OSEN 야구전문기자

프로농구 전적 10일

하나외환	16	13	19	9	57
KDB	20	16	17	18	71

2014년 3조 7천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된 국가(재원) 장학금
2015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신청기간 2014년 3월 3일(월) 9시~2014년 3월 21일(금) 18시

신청방법 www.kosaf.go.kr 접속 후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신청대상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 예정인 학생 및 미신청 재학생

저소득층 지원 대폭 확대

450 450 337.5 247.5 157.5 112.5

2014년 2013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지방대 장학금 지원

1.1 1.6

2013 2014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설

1,225 2,450 3,675 4,800

2014 신입생 2015 2016 2017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신청기간 : 3월 24일(월) 9시 ~ 3월 28일(금) 18시

든든학자금대출 신청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 1월 8일(수) ~ 3월 25일(화) 18시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 1월 8일(수) ~ 5월 26일(월) 18시